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기도

외아들 예수님을 인류의 구세주로 보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이 주님 오신 크리스마스를 간절히 기대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인부에게는 기쁨과 평화가 임하기를 크리스마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지금도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쁨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 나라 (누가복음 2장 14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464호 2013년 12월 21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성탄 칼럼

크리스마스! 평화의 왕이 오신 날



장영춘 목사 | 본지 발행인

지구촌이 애도한 만델라 장례식

지난 12월 5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첫 흑인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서거했다. 그는 가혹한 인종차별정책 폐지를 추진하다가 27년 동안 옥살이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된 후 자신과 흑인들을 탄압한 백인들을 용서했다.

제이콥 주마 남아공 대통령이 국영방송을 통해 목메인 소리로 "우리는 아버지를 잃었다"라고 그의 서거 소식을 알리자 남아공의 모든 술집에서 음악이 그치고 관공서에는 조기가 게양되기 시작했다. 만델라 자택 주변에는 추모객들이 줄을 이어 몰려들기 시작했다.

요하네스버그 FNB 경기장에서 열린 추도식에는 7만 명이 모였고 90여 개국의 지도자가 참석했다. 남아공의 5000만 명뿐 아니라 전 세계의 수십억 명이 뿌리 깊은 인종차별에 시달리던 남아공을 용서와 화해의 나라로 변화시킨 만델라와의 이별을 슬퍼하며 그의 정신을 기렸다.

성탄절은 우주적 축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날이다. 크리스마스는 지구촌 인류의 최대의 축제일이다. 성탄절은 크리스마스가 지구촌의 경계를 뛰어넘는 우주적인 축제일인 것을 선포하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축일의 땅에서 죄와 사랑의 권세에 놀려 고통당하다가 영원히 멸망할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인류, 용서 받을 자격이 없는 인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 그분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귀한 생명을 내어주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탄생하신 밤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눅 2:10)고 하였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눅 2:14)라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이다.

구속사적 왕으로 오신 예수

첫 크리스마스에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사관에 용납하지 않아 추운 마굿간에서 태어나시게 했다. 금년에는 우리 모두 나의 심령에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정결한 구유를 준비하여야 하겠다. 교만과 강박함을 버리고 주님의 용서와 화해를 본받아 먼저 이웃과 화해하고 우리 주님을 마음의 왕좌에 모셔 드리는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자. 단순한 용서와 화해를 넘어 구속의 은총을 맛보는 구원의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자.



2면

성탄 설교
 민경업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3면

성육신 사건 깊이 새기는 시간 갖자



4면

교회, 지역사회 선한 이웃 되다!



7면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정성구 박사(ICSK원장)



이병준 목사
 (뉴저지행복교회 담임)

이 성탄절에는

주님 이번 성탄절에는 산타크로스 오셔서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소서
 가난한 이들에게는 물질을 더하여 주시고
 병든 이들에게는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외로운 이들에게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주셔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경배케 하소서

주님 이번 성탄절에는 빈 구유에 오셔서
 교만과 오만으로 구멍난 마음의 상처난 곳에
 솟아난 새순의 잎사귀로 아물게 하여 주시고
 만발한 꽃들의 향내음이 이웃에 풍기게 하셔서
 사랑의 열매로 빈 구유를 채우게 하소서

주님 이번 성탄절에는 내 마음에 오셔서
 지저분한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게 하시고
 상해버린 믿음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셔서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게 하소서

주님 이번 성탄절에는 산타크로스 오셔서
 설레는 소망으로 아기 예수님 기다리게 하소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www.rptse.com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군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 특 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Scholarship 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 2014년 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

대 학 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 학 원	목 회 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 제출서류 ◇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4 신앙고백서 1부
- 5 명함판 사진(2"×2") 2매
- 6 입학 전형료 30불

◇ 원서교부 및 접수 ◇

- 1 원서 교부처 : 본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 2 원서접수마감 : 2014년 1월 24일(금) 오후6시
- 3 입 학 시 험 : 2014년 1월 25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 4 영 성 훈 련 : 2014년 1월 27일(월) - 29일(수) 저녁 8시
- 5 문 의 처 : Admission Office
 학감 / 교무 : 문경환 박사 (646)717-2733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총무처장 (516)782-4564
 Fax.(718)463-7047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 영 춘 박사

세상을 살다보면 육신에 상처를 입을 때가 많다. 칼에 베이기도 하고 화상을 입는다면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병에 걸리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면서 마음에 상처를 입을 때가 많다. 육신의 상처는 눈에 보이나 마음의 상처는 보이지 않아 소홀히 여기기가 쉽다. 그러나 대개는 육신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고 아프다.

또한 육신의 상처는 겉으로 보이기에 비교적 치료하기가 쉽지만 마음의 상처는 치료하기도 만만치 않다. 사실 육신에 상처를 입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은 너무나 많다. 아니,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고 산 사람이 있겠는가?

자신의 죄나 실수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다. 과거의 실책에 대해 두고두고 후회하면서 아픔을 곱씹는다. 남의 죄 때문에 상처를 받은 자도 적지 않다. 남편이나 아내의 죄 때문에, 부모의 죄, 자식들의 죄 때문에, 혹은 이웃이나 친구가 생각 없이 던진 말 한 마디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는 경우도 있다. 꼭 돈이 필요하데 없으면 상처다. 빌려주었는데 못 받아도 상처다. 별스럽지 않게 생각했는데 중병이면 상처가 되기도 하고, 사랑하는 이를 잃어서 큰 슬픔에 빠지는 자 또한 얼마 많은가!

대개 육체의 상처는 반드시 치료한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는 방치하기 쉽다. 하지만 육체의 상처를 치료하지 않으면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듯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지 않으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병이 될 수 있다.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지 못하여 낙심, 자포자기하거나 성질이 포악해지거나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도 있다. 마음의 상처가 노이로제, 우울증, 각종 심장질환 등의 육체적인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므로 마음의 상처는 반드시 치료받아야 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와 같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것이었다.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읽으신 본문이며,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 오셨다고 하셨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 즉 영육 간에 핍절한 사람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기 위해 오셨다. 마음이 깨진 자, 산산조각 난 자들의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오셨다. 인생의 온갖 전쟁터에서 패배의 쓴 잔을 마신 자에게 승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신다.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기 위해 오셨다. 본질적으로 죄의 굴레에 묶인 자, 감금당한 자를 풀어놓아 자유케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다.

예수님은 예후와의 은혜(구원)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심판)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고 하였으니 어떤 이유론든 종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며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모든 슬

픈 자를 위로하시는가?

첫째로, 슬픔 당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해주심으로 위로하신다.

마태복음 1장에서 천사는 요셉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별명을 가르쳐 준다. “보라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23).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슬픔을 위로 받을 수 있다. 사람은 고통을 당할 때 누군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의 삶의 전 과정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리얼하게 보여주는 사건들의 연속이다. 초라하게도 마구간에 탄생하신 것은 가난한 야기들과 함께 하심이다. 어렸을 때 애굽으로 피난하신 것은 이민자들 특히 정체성을 잃고 방황하는 1.5세, 2세와 함께 하심이다. 나사렛에서 힘든 목수 일을 하신 것은 이 땅의 모든 힘겹게 삶을 영위하는 근로자들과 함께 하심이다.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깊은 슬픔으로 함께 울어주심으로 오빠를 잃은 마르다, 마리아와 함께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

로 그 발을 적시며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며 향유를 부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의 행동을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 보았지만 아마도 이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회의 은총을 경험한 것이 너무나 기뻐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 틀림없다. 예수님께서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이때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시므로 그가 용서받았음을 확증해주셨다.

마가복음 2장에서도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네 명의 친구가 들것에 실어 지붕을

난 사람마다 문제를 해결 받았고 그것은 곧 큰 기쁨으로 연결되었다. 예수님을 만난 나병환자는 깨끗함을 받았고, 소경은 눈을 뗐으며, 38년 된 병자는 평생의 고질병을 고칠 받았다. 굶주린 백성들은 배부르게 먹고 음식이 철철 넘치는 기적을 보았다. 제자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라도 낚지 못했다. 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라 하셨을 때 순종하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다. 이 사건은 베드로로 하여금 평생을 주님을 쫓아가게 만들만큼 그에게 감격과 기쁨이 되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감격을 경험한다.

이런 일이 한국의 어떤 어부에게도 생겼다. 그는 포항 앞바다에 그물을 놓는 어부로 살았는데 고기가 안 잡혔고 그러다가 4억6천만 원의 빚을 졌다. 모든 일이 다 막혀 사면초가의 신세가 되었다. 너무나 막막해서 절망에 빠질 만큼 모든 일이 안 풀렸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고 교회생활도 신동치 못했다. 게다가 건강도 회복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망가졌다.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절망하다가 어느 날 저녁 주님께 항복하고 모든 것을 다 맡겨버렸다.

그런데 바로 그 날 저녁 자신이 처놓은 정치망(고기가 지나다니는 길에 놔두는 그물)에 120cm의 방어 5천 마리가 들어왔다. 정치망에 그런 크기의 고기 5천 마리가 들어갔다는 것은 밤새도록 차례대로 줄을 서서 들어갔다는 뜻이고 사실 그렇게 들어가지도 그렇게 많은 방어가 그 물 속에 들어가가지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아무튼 그런 기적이 일어나서 그 고기를 다 파니 5억2천만 원이 모아졌고 먼저 십일조 내고, 빚 갚으니 딱 맞아떨어지더라는 것이다. 주위의 사람들은 이 사건을 베드로의 기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기적 자체도 놀랍지만 가장 고마운 것은 주님께서 이 어부의 필요를 정확히 채우시고 자신을 위로하시고 기쁨을 주셨다는 것이다.

모든 슬픔 속에서도 주님께 자신을 내어줄 때 주님은 재 대신 화관을 씌우시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쁨을 부으시며, 근심 대신 찬송의 웃을 임혀주시는 종으신 주님이시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기쁨을 얻게 하시는 것이다. 성탄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모든 슬픔을 위로하신다. 또한 넘치는 기쁨을 주신다. 그러므로 그 어떤 슬픔 가운데 있는 자라도 성탄하신 주님을 바라보라.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성탄설교

모든 슬픔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61 : 1 - 3)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가가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 있다.

론 벨이라는 분은 ‘상처 입은 마음의 치유(The Cure for a Troubled Heart)’라는 책에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자신의 아들이 큰 고민에 빠졌다. 깊은 상실과 절망감에 빠져 해매는 것이 보였다. 아버지는 아들이 왜 그런 고통에 빠졌는지도 몰랐다. 물어보면 더 괴롭고 아플 것 같아 묻지도 않았다. 아버지로서 해줄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 그러나 너무나 괴로워서 절망하는 아들을 어떻게 위로할까 근심스러웠다. 그러다가 아들이 자는 방에, 깊이 아들이 잠이 들었을 때 몰래 들어가서 옆에 누웠다. 눈을 뻗히 뜨고 천장만 바라보면서, 저 마음을 어찌 위로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누웠다가 나왔다.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아무 말 없이 아들 곁에 누워서 밤을 지새웠다. 아들은 언제부턴가 아버지가 들어와서 조용히 눕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말이 없어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버지가 자신보다 더 괴로워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용기를 얻었다. 아들의 결단은 이었다. ‘그래, 나는 혼자야 아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분이 계시지 않는가?’ 그래서 아들은 마침내 마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새 출발을 했다.

누군가가 자기와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슬픔은 위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또한 그렇게 낮은 말 구유에 임하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할 수 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히4:16).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홀로 당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같이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신다. 우리가 슬프고 힘들고 속상하고 외로울 때 ‘누가 내 고통을 알고 내 눈물을 알겠는가?’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어떤 슬픔 속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다.

둘째로,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위로하신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가 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마1:21). 사실 인간 마음의 상처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죄악에 있다. 이 상처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모든 죄를 없애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주셔야 상처도 없어진다. 예수님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아 가셨는데 죄를 지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눈물

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한 사건이 나온다. 이때 예수님은 그 육체의 질병만이 아니라 더 더 깊은 마음의 상처를 보시고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셨다. 예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한 육체까지도 회복시켜 주셨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마음의 상처까지도 낫게 해주신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므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이시다.

셋째로, 넘치는 기쁨을 주심으로 위로하신다

예수님은 슬퍼하는 자에게 재 대신 화관을 씌우시며, 근심 대신 찬송의 웃을 임혀 주신다. 예수님은 단순히 위로의 차원에만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기쁨이 극대화되게 하신다. 누가복음 2장에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 이렇게 외쳤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10).

예수님을 만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 (323) 665-0009 (대 표) (323) 665-9025 (광고국)
Fax: (323) 665-0056 (편집국) (323) 665-0046 (광고국)
E-mail: la@chpress.net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대표) (718) 886-4424 (편집국)
Fax: (718) 886-0074 (대표)
E-mail: ny@chpress.net

발행인 겸 편집인: 정영춘
편집국장서리: 유원정

The Korean Christian Press (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 (every Saturday) 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2014년 봄학기 신입생에게 특별 장학혜택을 드립니다.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본교 소개

- 1986년도에 설립된 대학교로서 미조리주(MDHE)와 버지니아 주(SCHEV)의 인가를 받고 ATS(미국신학협회)와 ABHE(미국기독교대학협회) 회원대학입니다.
- 본교 동문과 재학생은 60여 개국에서 전문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최고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미래에 도전하는 비전 있는 대학교입니다. (본교 동문 리스트를 www.midwest.edu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음)
- 각 전문분야의 최고 교수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융합교육프로그램

ESL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Bachelor of Religion in Theology (Concentrations in)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Bachelor of Religion in Music
Bachelor of Religion in Business Administration

Master Degree Programs

Master of Christian Counseling
Master of Christian Education
Master of Church Music
Master of Mission Languages in TESOL
Master of Divinity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inistry (Concentrations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Doctor of Church Music
Doctor of Christian Leadership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 On-Line 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강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위취득 가능.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Site
7620 Little Rive Tnpk #400, An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Fax: (571)730-5751
E-mail: wdc@midwest.edu

성육신 사건 깊이 새기는 시간 갖자

2013년 성탄주일, 주인공 예수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 기억해야

성탄의 계절이 어김없이 돌아오고 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온 인류의 축복인 것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계절이기도 하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시고 하나님과 사람사이의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낮고 천한 베들레헴의 마구간으로 오셨다. 지구촌은 지난 한 해 동안 전쟁과 폭력, 테러로 신음해왔으며, 억압과 차별로 인한 고통이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미군이 이라크에서 공식적인 임무를 마치고 철수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화 혁명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다사다난했던 2013년의 크리스마스를 맞는다. 성탄절 축제의 근원은 그리스도인들이 2천여년 전에 실제로 발생했다고 믿고 있는 하나의 조그맣고 조용한 사건, 사람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한 평범하게 보이는 인물의 탄생이다. 이 축제의 핵심은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소리 없는 탄생, 곧 임마누엘의 사건이다. 그러기에 인류 역사상 크리스마스보다 더 중요하고 의미 깊은 날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성탄절에 대하여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 다른 관점들이 있다. 이 날을 백화점의 세일기간처럼 물건을 사고 돈을 버는 상행위의 특수 계절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성자의 탄생을 빌미로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여기는 이들도 적지 않다. 신앙심 깊은 그리스도인이자 크리스마스를 인류를 구원해주시기 위하여 메시아가 탄생한 거룩한 날, 그러기에 더할 수 없이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이라 생각할 것이다. 사실상 그들은 성탄절이 창조주 시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무 힘도 없고 불품도 없는 한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신비스러운 날임을 알고 있다. 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수한 부부, 요셉과 마리아



를 보낸다는 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시어 이 세상에 구속사적으로 임하신 일을 기념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의 사실을 생각하며 기념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주님의 성육신의 참된 의미를 바르게 생각하느냐에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기에 주님께서 성육신하셔서 대리속죄의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해결되지 않을 정도이며, 이와 같이 심각한 죄 문제 때문에 주께서 성육신하셨다는 기독교의 본질적인 사실을 주의 깊게 생각하게 된다. 이런 성육신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 성탄절이라면 참으로 무의미한 날이다. 또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사 실현 성탄, 사랑실천 절기로 우상숭배적 세속성과 오만함 버려야 임마누엘

를 육신의 부모로 하여 태어났고, 메시아를 대망하던 이방의 지성인들(동방박사)과 멸시 받는 천민 목자들에게 의하여 그 탄생이 목격되었으며, 그들의 따뜻한 축하를 받았다. 한마디로 아기 예수님은 진심으로 그를 맞을 준비가 되어있는 겸손한 심령들에게 오셨다는 말이다. 동방박사들은 큰 별을 보고, 목자들은 천사의 알림으로 예수의 탄생과 그 장소를 알게 되었다. 별이나 천사는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를 상징한다. 아기 예수가 누운 곳은 어디였는가? 말이나 소 같은 가축의 먹이통, 구유였다. 말과 소는 아무런 불평 없이 인간을 섬기며 열심히 일하는 순한 가축이다. 예수께서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은 그가 세상을 섬기는 종으로서 일하기 위하여 오셨음을 상징한다. 구유에 담겨진 여물처럼 인간의 생명을 위한 양식으로 오셨다는 것을 뜻하기

도 한다. 예수의 탄생에 나오는 인물과 배경에 대한 성경의 증언을 정리해보면,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아기 예수를 맞이할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 분은 우리들이 우리의 생각, 관심, 일, 직업 등을 절대적인 것으로 아는 우상숭배적 세속성과 오만함을 버리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다. 그 분은 권력자, 정치인, 관리, 실업인, 심지어 학자와 종교인 등 소위 가진 자들, 이 세계의 지배, 지도 계층들이 제 힘과 권력과 능력을 오만 무례하게 행사하는 곳에는 오실 수 없다. 아기 예수는 금년 크리스마스에 겸손하고 순수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그분의 오심을 충심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진리의 별빛을 바라보며 성경에 나타난 계시의 음성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구유 같은 마음자리에 오신다. 우

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직종에 종사하든 그 어떤 사회적 지위에 있든, 가진 것이야 있든 없든, 스스로 낮아지며 겸손해져서 종의 자세를 지니지 않는 한, 크리스마스에 오신 아기 예수를 진심으로 맞이할 수 없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비우는 행위로부터 시작된다. 그 분이 우리의 마음의 성소에 임재하시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비워 약한 자,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들과 나누고 그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아기 예수의 몸으로 임마누엘하신 것은 비단 2000여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다. 우리가 배고프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비울 때 그 분은 우리 속에 탄생하신다.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탄절

이런 절기를 설명하며 자연스럽게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릴 수 있다면 그것은 이 날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될 것이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 없이 이 절기를 보내는 데 익숙해졌지만 우리는 이 기회를 이용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왕 모든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이 절기를 이용해서 ① 그리스도인들로서는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②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성탄의 참된 의미를 전하는 기회로 삼으며 ③ 그리스도의 정신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참 사랑을 표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 성탄의 절기에 사랑의 실천을 연습하는 좋은 기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자세를 다잡아야 한다.



시론

성탄의 본질

대강절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고급스러운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케이크, 산타클로스를 등장시켜 상인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상흔을 조성하기에 바쁘지만, 반면 여기저기서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즐거운 소식들이 각종 언론매체들을 통해 많이 들려온다. 기독교인이나 비 기독교인이나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귀한 마음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많은 사회단체들과 교회들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조금씩 돈을 모아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는 소식, 홀리데이들과 장애인들을 찾아가 식료품과 의복을 지원하며 외로운 독거노인들에게 사랑의 선물바구니를 만들어 전달했다는 소식, 경찰서와 소방서를 찾아가 선물을 전달하며 그들의 수고에 감사하고 격려했다는 소식, 병상에 누운 환자들과 너스름을 찾아가 위로하며 기도해주고 왔다는 소식, 필리핀을 위해 재해성금을 전달했다는 등 아름다운 소식들이 계속 들려온다. 어디 그들뿐이겠는가? 다른 사람들이 잘 알지는 못하지만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작은 것이나마 소외된 이들에게 베푸는 손길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많은 이들이 이렇게 베풀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모두가 직, 간접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따듯한 사랑의 정신을 배웠기 때문일 것이다. 나 또한 다른 사람들이 행한 귀한 소식들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저들에 못지않게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런 귀한 나눔은 성탄의 절기만이 아닌 연중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해본다.



최상섭 목사 (에벤에셀 선교교회)

특별히,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왜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그 본질을 바로 알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기회가 된다더욱 아름다운 대강절이 될 것이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본체로 이 땅에 오셨다. “큰 기쁨의 소식”이란 바로 “구주”가 나셨다는 것이다. 즉 예수님은 구세주와 주님으로 나신 것이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이 세상 풍속과 공종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육체와 욕심을 따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결국 심판과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서 건지시기 위해 오신 것이 곧 “기쁨의 좋은 소식”인 그리스도의 탄생이다. 이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그늘지고 소외된 모든 이들과 아직도 주님을 거부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전해지는 절기가 되도록 기쁜 소식의 전달자들이 되기를 기도한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과 섬김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으며, 자신을 낮추시고 죽으심으로 친히 희생제물이 되셨다. 또한 그분은 친히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시니라” 하셨다. 그런데 그분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는 고백을 하면서도 겸손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 영적인 교만, 지식적인 교만, 물질적인 교만, 남보다 더 많이 섬긴다는 봉사의 교만, 명예와 경력의 교만 등, 이제 겸손을 회복해야겠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되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대접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대접하는 자세를 가지고, 높임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자신을 희생하여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자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군천사들이 부른 노래가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의 평화라”다 했다. “평화란 ‘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때 주어지는 선물이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Broken Relationship”이 되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참된 화평을 이룰 수 없다. 부부간에 화목, 부모자녀간의 화목, 성도들끼리 화목, 동족들과의 화목, 타민족과의 관계에서도 화목을 회복해야 한다. 특별히 교회들마다 주님 탄생하심을 노래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나와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미움, 분노, 다툼, 분열과 저주가 아닌 사랑과 용서, 포용을 통한 화목이 회복될 때 진정한 성탄의 아름다움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Better World, Better Life, Better You! 베데스다대학교 신/편입생 모집

목회학 박사

신학과 목회현장을 잇는 목회자 최고 전문학위과정

겨울학기 목회학 박사 (D.Min) 집중 과정 학생모집

목회학 박사과정은 기존교회와 선교단체 그리고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한 최고의 전문학위 과정입니다. 이 과정의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목회 및 사역을 위한 고도의 학문적 전문성을 갖추게 함과 동시에 성령 충만한 삶의 실질적 모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지역사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십을 갖추게 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목회 및 사역에 필수적인 “Efficient/ Effective Practical Leadership” 과 21세기 포스트모던 시대를 위한 복음제시를 위해 “Dynamic/ Biblical/ Christ-centered Preaching” 을 핵심 과정으로 제공합니다.

강의 일정 2014년 1월 20일(월)~24일(금) / 1월 27일(월)~31일(금)

Course	Professor	Schedule
사차원의 영적세계	Dr. Hyeon Sung Bae	Jan 20(M)~24(F)
성령의 은사와 교회성장	Dr. Peter Kang	Jan 27(M)~31(F)

정규 대학원 석사학위 (M.Div) 소유자로서 3년 이상 목회를 하신 목회자들의 연장 교육을 위하여 목회학 박사과정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유아교육학과

복음을 바탕으로 사랑과 책임감 있는 교육 모델을 제시합니다

개강 겨울학기 1/2, 봄학기 2/24, 여름학기 7/22, 가을학기 8/25

인턴십 및 취업 지원 교수 및 원장 자격증과정을 마치면,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교사 및 원장**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교사나 원장을 필요로 하는 유치원이나 사역자들 원하는 교회에 연결해드립니다.**

베데스다 대학교에는 유아교육 교사, 원장 자격증 과정과 함께 4년제 학사학위(B.A.) 과정이 있습니다. 탄탄한 이론과 풍부한 현장 경험도 강조하지만, 유아들을 성경적으로 사랑으로 지도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와 원장, 유아교육 사역자를 배출합니다.

특전/교수진

특전 유아교육 학사과정으로 편입할 경우 자격증 과정 학점을 인정해 드립니다. 유자격자는 연방 학비 보조 가능합니다.

교수진 석사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수진이 책임감을 가지고 지도합니다.

모집학과

신학학부

음악학부

유아교육학과

경영학과

IT학과

시각디자인학과

ESL Program

대학스포츠팀

Toll Free 1.800.960.4583

Fax: 1.800.960.4584 admission@buc.edu

1-20 발행합니다

미국 연방정부로 부터 Financial Aid 보조가능합니다 (전액도 가능)

730 N. Euclid St. Anaheim CA 92801

www.buc.edu

목회칼럼

손원배 목사 (임마누엘장로교회)



나의 하늘 아버지

저는 어린 시절 흠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가난했고, 집안에 자랑할 것이 정말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자랑할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생을 살며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무렵, 나무로 책꽂이를 만드는 공작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아이들이 완성을 하지 못하자, 선생님은 집에 가서 만들어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가서 혼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연장이 변변히 없어서 겨우 구색만 갖춘 책꽂이를 끄덕대며 간신히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보니 친구들은 멋진 책꽂이를 만들어 왔습니다. 모두들 아버지가 계셔서 만들어준 모양입니다. 제가 열심히 만든 책꽂이는 너무 초라하고 볼품없어서, 어린 마음에 크게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별들이 유난히 조롱조롱 빛나고 있었습

니다. 그런데 문득 제 마음에 스쳐 지나가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 너희 아버지들은 책꽂이를 만들어 주셨지. 그렇지만 나의 하늘 아버지는 저 하늘에 별들을 만들어 주셨다! 어쩔래."

그 이후로 저에게 별들은 예사 별들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만드신 것이기에, 길가에 핀 작은 들꽃 하나도 그 후로는 소중하게 보였습니다. 하나하나 나의 하늘 아버지가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땅의 아버지는 곁에 계시지 않았지만, 저의 생애 50여년이 흐르는 동안 저의 하늘 아버지는 참 좋은 아버지로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꺾이지 않고 담담하게 살 수 있도록 든든한 배경이 되어

주셨습니다.

중학교 입시제도가 있던 시절, 아무 것도 없는 형편에 제가 시골에서 서울로 공부를 하러 갈 때에도, 중1 때 쟁쟁한 저를 가출 소년 인줄 알고 제 뒷덜미를 잡고 끌고 갈 때에도 하나님은 든든한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고1 때 폐결핵으로 죽을 문턱까지 갔을 때에도, 결혼 후 빈털터리로 아내와 함께 미국 유학길에 오를 때에도, 경험도 없고 준비도 없이 목회를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도우시며 인도하셨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이론이나 지식에 거하는 추상적 존재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저의 삶 속에서 늘 저에게 말씀하시고 들

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아직 모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이 좋은 하나님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는 분이 계시나요? 결코 그 기록이 깨어지지 않을 베스트셀러, 빌리언셀러인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저를 사랑하셨고 저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도 만나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가까운 교회에 찾아가십시오. 여러분을 환영하고 도와줄 것입니다.

교회, 지역사회 선한 이웃 되다!

UMC한인목회협의회, 텍사스 엘파소교회 "홈리스 사역" 소개

교회는 본질적으로 이 세상의 구석구석에 생명을 실어 나르는 실낱줄 모세혈관과 같아야 한다. 지역교회(Local Churches)는 세워진 지역에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사랑을 소외된 곳이 없도록 전달하는 살아있는 모세혈관이여야 한다. 따라서 지역교회가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몸으로 사역해 지역의 모든 사람이 교회를 알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알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도록 한다면 교회도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가 될 것이고, 지역사회도 활기를 얻게 될 것이다.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교회가 세상에서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교회를 바라볼 때 자선단체처럼 선한 일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교회가 그들의 기대처럼 자선단체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의 기대가 비기독교적인 것은 아니다. 그들의 바람은 '세상을 향해 섬기는 리더십'이기 때문이다. 홈리스 사역은 작은 규모의 교회에서도 할 수 있다. 홈리스 사역을 통해 교회를 섬기는 리더십으로 활성화 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가 교회의 이미지를 좋게 보는 통로가 될 수 있다.



기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홈리스 인원을 조사하고 섬기는 대상의 규모를 파악해 교회의 능력에 따라 섬기는 회수나 봉사 팀을 몇 팀으로 할지를 정하면 될 것이다. 형편과 사정에 따라 요리를 해서 음식을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도시락을 제공할 것인지를 정하고, 필요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계산하면 될 것이다.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이 일을 하기 위해 팀장과 회계를 두고 시장 보는 일을 책임지면서 팀원 7-8명을 유지하는 일을 책임지게 한다. 팀원 절반 정도는 꾸준히 하여 능숙한 사람으로 채우는 것도 필요하다. 엘파소교회는 토요일에 있을 사역을 위해 금요일 시장을 보고, 식빵, 슬라이스 치즈와 햄, 양상추, 쿠키, 스낵, 사과, 음료수용 분말 레몬, 샌드위치 비닐 백, 브라운백 등을 구입해 준비한다.

재정은 교인들이 자원해 홈리스를 위한 구제현금을 하도록 권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홈리스 사역이 이웃들에게 알려지면 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좋은 일에 보태라'면서 헌금해주는 일도 있고, 무엇인가 선물을 하고 싶었는데 참여하고 싶다면 헌금해주는 사람들도 나타난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노숙자들이 먹이는 일을 한다고 하면 적은 돈이라도 거둬주고 싶어 한다. 그러므로 작은 교회라 재정이 부족한 교회도 충분히 할 수 있다.

5. 지역봉사단체와 협력하라

규모가 작은 교회라 힘이 부족하면 이웃교회와 함께 할 수도 있다. 한 교회에서 3-4명 정도의 봉사대원만 있어도 가능하고, 매달 지출 경비도 두 교회가 반반 나누어 부담하면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섬기는 일을 기쁘게 할 수 있다.

교회의 자원이 많아 자체적 홈리스 센터를 교회에 설치할 수 있겠으나, 음식을 제공하는 일은 많은 시설이 필요하므로 중소교회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면 지역 홈리스 사역단체를 찾아 시설을 이용해 협력하는 방법이 있다. 지역의 홈리스 사역지를 찾는 일은 어렵지 않다. 인터넷에서 'homeless ministry' 혹은 'Christian homeless ministry' 등으로 검색하면 홈리스 사역을 전문으로 하는 지역단체를 찾을 수 있다. 그들과 협력해 한 부분을 맡아 섬길 수 있다.

홈리스 사역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책임감을 갖고 하는 일이다.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꾸준히 지역을 돌보는 사역이 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목회자가 솔선해 앞장서서 몇 차례 하다 시들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오래해 문화가 되면 교회의 체질이 되어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힘이 될 것이다.

1. 지역사회의 선한 이웃이 되기를 기도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독교 신앙의 핵심가치라면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신 '선한 이웃이야기'는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활기를 얻는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교회의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다.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선한 이웃이 될만한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기도하며, 길거리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홈리스를 위해 기도한다. 목사는 예배하면서 '목회기도'를 할 때 홈리스 사역을 위한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한다. 이 일은 교회가 지역사회에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한 마음 발을 가꾸는 일이다.

2. 홈리스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연습하라

홈리스는 미국사회에서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이웃 중 하나다. 이들이 길거리를 배회하거나 주먹가르 다니며 구걸을 한다면 사람들은 이들을 이웃으로 여기기보다 불안과 불쾌감을 주는 대상으로 이해할 것이다. 이러한 느낌을 나무랄 일은

아니다. 그러나 홈리스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께 하는 일을 생각하는 것이 지역사회에 선한 이웃의 리더십이 할 일이다.

홈리스들은 게으름뱅이가 아니다. 그들 대부분은 조직사회의 부적응자들이거나 정신적 장애 혹은 약물중독, 군에서 전쟁을 경험해 얻은 전쟁후유증 환자들이다. 그들 대부분은 자기 집과 가족을 모르고 있으며, 사회안전망 제도의 소외시큐리

티에 접근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자신의 주소도 없기에 정부의 복지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다.

3. 홈리스 사역을 통해 섬김의 리더십을 교육하고 훈련하라

교회의 리더십은 예수님 가르침대로 부족한 것을 채우며, 비뚤어진 것을 직접 바르게 하고, 깨어지고 상치난 것을 고쳐 온전하게 하는 섬

김이다(마20:25-28). 이러한 섬김의 리더십은 성령의 열매로 가능한 일이며 훈련을 통해 몸에 익혀야 한다. 따라서 섬기는 리더십은 말씀과 믿음의 열매이며 몸에 익숙하게 훈련되는 것이다.

홈리스 사역은 섬김의 리더십을 훈련한다. 섬기는 일의 기쁨을 알고, 영적 성장을 경험하는 은혜를 교회에 선물한다. 교회는 이 일을 통해 세상을 섬기는 영성이 체질화

되고 성숙하게 세워져 간다. 가능한 많은 교인들이 이 일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적극 참여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은 점차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교회의 섬기는 리더가 될 사람들이다. 리더는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어두운 면을 보고 섬기게 해야 한다. 세상의 리더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광을 차지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기

독교 리더십이다.

홈리스 사역을 통해 섬기는 리더십 개발만 아니라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나 대학에 입학할 때 홈리스 사역을 통해 얻은 경험과 섬기는 리더십은 높이 평가 받을 것이고 장차 지도자로 성장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교회에서도 평신도 리더가 될 사람들은 반드시 홈리스 사역을 통해 섬기는 훈련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집사,

권사, 장로, 교사 등은 의무적으로 한 해 몇 번 이상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자원봉사대를 조직하라

홈리스 사역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필요하다. 중대형 교회로 인적 물적 자원이 많다면 매주 한 번씩 실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회 규모가 작다면 한 달 한 번 정도 섬

궁핍히 여기는 마음, 섬김의 리더십 훈련 자원봉사대 조직, 지역 봉사단체와 협력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On Campus Courses

본교 소개 및 특전

-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2. 미국에서 유일한 신학교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2014년 봄 학기 본교강의안내

Feb 10-14(2월 10일-14일) DI 851 Biblical Teamwork in Missions(선교에서의 성경적 팀사역)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Roger Peugh

DI855 God's Strategy for the World(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Todd Bradley

Feb 17-21 (2월 17일-21일) DI 802 Cultural Anthropology (문화인류학)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졸업식 안내

일시: 2014년 5월 10일(토) 오전 9시 장소: 본교 Orthopaedic Capital Center

Online 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Jan 6-Feb 28 (1월 6일-2월 28일) DI 801 Intentional Multicultural Ministry(고안된 다문화 사역)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Bangkok, Thailand March 31-April 4 (3월 31일 -4월 4일) IM 8300 Islam(이슬람)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Todd Bradley

Korea April 7-11(4월 7일 - 11일) DI8220 Clutures of the Old Testament(구약에서의 문화)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Tiberius Rata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사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첫번째 성탄절 이후로 성탄절의 역사성에 대한 수많은 도전이 있어왔다. 하지만 성탄절의 역사성은 그 어느 역사적인 사건보다도 더 많은 역사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 역사적인 기록인 북음서들과 서신서는 물론이고, 교회 밖에서의 풍성한 자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역사적 사건으로 확실하게 증거한다.

누가는 성경을 역사적인 기록방법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자료를 모아 정리하여 차례대로 기록했다(눅1:1-4). 누가복음의 역사적 가치와 신빙성에 대해서는 William Ramsy의 30년 연구에 의하여 증명되었다. 그는 예수의 부활의 역사성을 부인하려고 비평적 연구를 오랜 세월동안 조사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역사성을 인정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역사적 자료가 어떻게 수집되었

람들이 위대한 선지자라고 믿었던 세례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증언이다. 2)이웃들과 친척들의 증언이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기까지 아기를 갖지 못했었다. 사가라가 본 환상과 기적의 체험 후에 잉태하고 세례요한을 낳았다(눅1:58).

3) 목자들들과 다른 사람들의 증언이다. 베들레헴 근방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 탄생을 증거했다(눅2:15-20). 비록 가난하고 비천한 신분들이지만 메시아의 탄생을 소식을 제일 먼저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했다. 4)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다. 동방의 박사들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메시아에게 경배하려고 멀리 동방에서부터 찾아왔다(마2:1-3). 온 예루살렘과 정치권과 종교계가 다 들었다. 5) 예수님의 부활 후에 남자만 5백명 이상의 사람 앞에서 예수님은 승천

이 들어서 불가능한 상태에서 잉태를 하고 해산을 했다. 그 아들은 세례 요한이었다. 따라서 스가라의 병어리됨, 세례요한의 태어남, 그리고 예수에 대한 증거 모두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생생하고 살아있던 역사적 증언들이었다(눅1:5-66).

4)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에 쓰임받은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신성은 출생 때 이미 선포되고 확인되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사건은 생생한 역사적 증언들을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문서적인 증거의 숫자들도 천문학적이다.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증거를 담은 사본들은 24000개가 넘는다. 이런 문서들은 예수님이 생애 후 불과 25년 안에 기록된 것이다. 목격자들이 많이 살아있던 시대이다. 다른 역사적인 문서와 비교하면 그 차이는 엄청나다. 줄리어스 시저의 갈릭 전쟁은 10개의 사본이 있다. 그리고 그 기록은 무려 1천 년 후에 기록되었다. 유명한 역사가 헤로도투스의 사본도 8개이다. 무려 1300년 후에 기록된 것이다.

은 그리스도 Christos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그리스도는 티베리우스에서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으로 증거한다. 그리고 그는 예수의 부활을 약의적인 미신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나 예수의 생애가 역사적이었음을 입증한다.

그외에도 Pliny the Yonger(112), Hardrian(117-138), Suetonius(120), Phlegon(140), Lucian of Samosata(170), Mara Bar-Serapion(200) 등의 문서에도 예수님의 생애의 역사성에 대한 증거들이 확실하고 발견된다.

예수님과 관계되어진 고고학적 증거들이 많이 발굴되었다. 예수님의 출생지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지 바로 직후부터 인정되어왔다. 유명한 제물이나 놀라의 Paulinus의 기록은 하드리언 황제(120) 때부터 출생장소로 표시되었다고 한다. 고고학자들도 오일의 베들레헴 출생교회가 바로 그 자리에 세워졌다고 인정한다.

1945년에는 예루살렘 근교에서 예수님 직후의 무덤들이 발굴되었다. 수많은 유골함은 예수님의 부활 후 20년 정도 후에 묻혀진 것



첫번째 성탄절의 역사성 (2)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 김혜천 목사

을까?
누가는 성탄을 목격했던 증인들을 인터뷰함으로써 수집했다. 그리고 많은 증인들이 생존하여 있던 시대에 누가복음은 기록되었다. 기록의 역사성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살아 있는 증인들의 비판적인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사실이란 증거가 확실해야 보존할 가치가 있다. 지금 누군가가 "오바마 대통령은 동정녀에 의하여 태어났다"라고 주장한다면 역사적인 기록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진실 여부가 금방 밝혀지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생애, 기적, 부활 등의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기록되어 오를까?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도 천사들이나 신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는 주장하기도 한다. 그것들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개인적인 경험은 쉽게 거짓말로 조작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적 사실로 경험했고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

누가 성탄을 경험했는가?
1)제사장 사가라가 병어리가 되었다가 다시 말을 하게 되었다(눅1:21-22; 1:65-66). 존경받는 경건한 제사장의 증언이고 또한 사

하했다(고전15:6-7).
성탄의 증인들이 누가 있는가?
오바마나 시저 황제나 다른 어떤 역사적 인물의 출생에 대한 증인들은 극소수이다. 그 이유는 기억할만한 특별한 출생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사건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했다.

1)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놀라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의 탄생을 기적적인 천사들의 나타남과 선포를 직접 들었다. 친히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험하고 경배했다(눅2:17-18). 베들레헴은 적은 도시이었다. 후에 누가가 그 증거들을 쉽게 수집할 수 있었다.

2)시므온과 안나는 당시에 유명한 존경받는 선지자들이었다.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오랫동안 기다리던 경건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성전에서 갓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만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언의 성취를 증거하고 또한 새롭게 예언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증언을 들었고 기억했다(눅2:25-38).

3)스가라와 엘리사벳은 매우 존경받는 제사장 가족이었다. 사람들은 그들이 천사의 출현을 조작했다고 감히 말할 수 없었다. 스가라는 성전에서 이상을 보았고 엘리사벳은 구약의 사와 같이 나이가 많

하지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은 사건 바로 직후에 수많은 증인들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에 대한 증거들이 많이 있다.

주후 30-50년 사이에는 기록된 자료들 중에서 남겨진 것들은 많지 않아 보인다. 대부분의 남아있는 자료들은 주후 50-70년 사이의 문서들이다. 1)Thallus(주후52)는 Jullius Africanus 이야기를 인용한다. 아프리카누스는 예수의 죽음 때에 임한 암흑을 일식이라고 말했다. Thallus는 그때에 일식은 없었다고 말했다. Thallus도 일식은 없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묘사한 것이다.

2)예수님 당시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Josephus, 64-93)도 예수님을 언급했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 행한 기적, 십자가, 그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그리스도라고 불리워지는 예수의 형제"라고 말했다. 세례요한과 그 외에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증거하고 있다.

3)Cornellius Tacitus(64-116)의 글에도 네로가 일으킨 주후 64년의 로마의 대화재를 언급하면서 당시의 루머를 증거한다. 네로는 그 죄를 로마의 성도들에게 뒤집어 씌웠다. Tacitus는 크리스천

로 보인다. 유골함과 함께 주후 50년경에 제조된 동전들이 발굴되었다. 유골함에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그를 다시 부활시켜주세요"라는 글들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십자가 모양들로 발견되었다. 즉 예루살렘교회 성도들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함을 보여준다.

Ralph O. Muncaster는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469개가 있는데 그 중에 467개가 성취되었다고 증거했다. 예수님께 대한 예언들의 성취는 너무나 놀라운 증거가 된다. 그 예언들이 한 사람의 생애에서 성취될 수 있는 확률은 한 마디로 '절대로 절대로 불가능'이다. 그런데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서 성취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의 역사성은 분명하다. 예수님의 생애는 어떠한 역사적 사건보다 비교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들이 있다. 성탄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 예수를 믿는 것이야말로 성탄의 축복을 가장 확실하게 그리고 성탄의 목적을 이루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메일:revdavidkim@yahoo.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gmail.com

Q: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여 구주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아 했는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는 메시아 탄생 때의 이름이 예수, 임마누엘이란 이름으로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메시아의 이름이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나오는지요? 알고 싶습니다.

A: 구약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의 대표적인 이름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예레미야 23장에 나오는 여호와 치드케누입니다. 그 뜻은 "여호와와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을 이스라엘을 치는 "목자"로 칭하여 부르고 있습니다(렘23장).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목자인 왕을 잘못 만나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목자인 왕들은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터이니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각종 우상을 섬기며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칼에 죽고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흩어져 개처럼 외국으로 끌려가 많은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이상적인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고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나라가 강해지고 복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은 평안히 살고 나라는 점점 번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이후에 불의한 왕들과 방백들로 인해 나라가 기울고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유대나라를 다시 일으키고 다윗의 계보에서 의로운 가지(a righteousness branch) 즉 제 2의 다윗과 같은 이상적인 왕을 일으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지혜와 공평과 의로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이름이 여호와 치드케누(The Lord, our righteousness)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의로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고 의를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마치 임금이 아들을 삼기 위해 거지 중에서 한 아이를 택해 거지의 옷을 벗겨버리고 왕자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죄의 누더기를 벗겨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목욕시킨 다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둘째는 사사기 6장에 나오는 여호와 살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그들이 범죄하여 가나안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으로 미디안 족속들이 침략하여 사람들을 죽이고 추수한 농작물들을 빼앗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두려워서 산에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죄란 이처럼 사람들에게서 평강을 빼앗아 갑니다. 하루는 용사인 기드온이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와 사자가 말하되 너는 네 힘을 의지하여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라. 기드온은 그 사람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는 하나님을 본고로 죽을 줄 알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하나님의 사자는 신약시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너는 안심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자 거기서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약시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 살롬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죄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호와 살롬 즉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평강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부목사님 청빙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는 풀타임 부목사를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1. 자격
 - 1)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가 인정하는 신학교를 졸업하신 분 (M.Div)
 - 2)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에 한함
 - 3) 이중언어할 수 있는 분
2. 구비서류
 - 1) 이력서
 - 2) 목사 안수증명서
 - 3) 학력 증명서
 - 4) 설교 CD 2개
 - 5) 목사님 추천서 (2인)
3. 제출마감 **2014년 1월 31일**
4. 제출처
 - 1) 주소: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 2) E mail: yspcpastor@gmail.com
5. 문의 김인광목사 (215-385-6086)

영생장로교회
담임 이용걸목사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_____	목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배달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 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의 티벳인(TIBETANS)



티벳은 인도의 바로 북쪽, 중국 남서부에 위치한 산악지대다. 1950년 중국인들은 티벳을 침략했으며 티벳은 그 당시 군사력이 약한 국가였다. 하지만 종교지도자이자 티벳의 황제인 달라이 라마는 계속 지도자로 남도록 했다. 티벳과 중국정부 사이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중국 공산당은 계속해서 티벳인들을 억압했다. 곧 티벳인들의 마음 속에는 분노가 커가기 시작했다. 1959년 티벳의 수도인 라사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도시 외곽 중국군의 병영에서 공격이 시작돼, 달라이 라마를 보호하라는 경계령이 전해졌다. 밤동안 달라이 라마는 티벳 병사의 옷을 입고 인도로의 위험한 여정을 떠났다. 일부 내각 대신들, 개인비서, 경호원들, 그의 가족들도 동행했다. 수천명의 티벳인들은 자기들의 지도자를 따랐으며, 오늘날 10만명 이상의 티벳인들이 북 인도와 주변국가에서 아직도 망명생활을 하고 있다. 달라이 라마는 현재 인도의 다람사다에서 살고 있으며 티벳인들을 통치하고 있다.

삶의 모습

티벳은 현재 중국의 자치지역 중 하나지만 인도의 티벳인들은 아직

도 과거 자기들의 나라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들은 주로 인도의 북부와 동부에 집중돼있다. 티벳인들은 몽골인종으로 그대다수는 인도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 이름이 붙여진다. 각 종족은 티벳어 방언을 사용하며 중국-티벳어계의 티벳-버마 언어군에 속한다.

인도의 티벳인들 대부분은 농부거나 유목민이다. 농부들은 보리, 메밀, 야채 등을 재배하며, 옹기종기 모인 마을이나 따로 떨어진 단독주택에서 산다. 유목민들은 텐트에서 살며 가족 떼를 이끌고 여행하는데, 주로 양, 소, 염소, 야크와 소의 잡종인 조(dzo)를 키운다. 낙농품과 양모가 중요한 상품이며 매년 곡물거래여행 때나 원거리 시장 거래에서 사용된다.

티벳인 일부, 특히 인도북부에서 사는 사람들은 통치자와 귀족이며 다른 일부는 라마 승려로 승원에서 살며 기도와 명상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 그들은 또한 종교 예술과 문학에 주로 주요 관심을 두는 의

사가 되기도 한다. 또 다른 일부는 사유지의 지주이거나 장인이다. 전통적인 티벳인 기술로는 양모와 섬유 가공, 재분, 금속 공예, 회화, 목공 등이 있다. 티벳 이주민들은 인도의 문화와 전통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들의 고유문화를 보존하려는 노력으로 티벳인 학교가 세워졌다. 전통적인 티벳의 의식이 아직도 지켜지고 있다.

티벳 사회는 매우 개방적으로 일 부다처제와 일처다부제가 흔한 관행이다. 결혼이란 두 가정 사이의 비종교적인 결합으로 여겨지며, 점성술과 우주철학이 배우자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티벳 여자들은 아이들을 돌보고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맡으며, 또 원한다면 무역이나 농사도 한다.

신앙

인도의 티벳인들 중 3개 종족은 아직도 라마교라는 불교를 지키고 있다. 라마교는 수백년동안 티벳에서 믿어왔으며, 고유의 종교라고

생각한다. 사제들은 "라마(lamas)"로 부르며 3개의 종족(그로마, 라홀리, 라사 티벳인)은 달라이 라마와 근접한 곳에서 산다. 2개의 종족(발티, 부리그)은 인도의 북서부에서 살며 그 지역의 지배적인 종교인 이슬람교를 받아들였다. 또 2개의 종족(라다키, 카나우리)은 혼합된 종교를 믿는데, 라다키족의 신앙은 라마교와 이슬람교가 혼합돼 있고 카나우리의 종교는 라마교, 힌두교와 다양한 전통신앙들이 혼합돼있다. 나머지 3개의 종족(아다, 아디-갈로, 라바)은 전통신앙을 믿고 있다.

불교는 바른 생각과 제사, 자기 부인을 함으로 영혼이 열반(nirvana)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친다. 그들은 죽음 후에는 동물이 되던 인간이 되던 또 다른 삶의 형태로 환생하게 된다고 믿는다. 업보(karma)의 법칙에 의하면 현생의 모든 행위는 내세에 영혼이 어떻게 태어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많은 종족들은 "공중매장

(sky-burial)"을 행하는데, 비바람을 맞고 난 시체는 나무 안에 놓여져서 결국은 썩어 없어지게 된다. 이때, "업보의 씨"는 계속 남아있으며 또 다른 신체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의 순환을 시작한다고 그들은 믿는 것이다.

라마교는 세속에 대한 애착은 고통의 원인이라고 여겨진다. 많은 사람들은 명상을 통해 정신을 연마함으로써 이러한 애착을 제거하려고 한다. 누구든 평화 가운데 명상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필요로 하는 것들

인도 티벳인들은 단지 성경의 일부만을 이용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리고 단 하나의 종족, 라사 티벳인만이 그들의 언어로 된 기독교방송과 영화 "예수"를 이용할 수 있다. 참 평화는 그리스도를 앞으로 써만이 발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소중한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한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기독교 탄압극심국가 성서보급 최고 8배

기독교 박해가 극심한 시리아, 이라크 등의 국가에서 성경 배포 수가 최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세계성서공회연합회(UBS)에 따르면 크리스천에 대한 테러가 빈번한 시리아에서 성경 배포 수가 가장 크게 증가했다. 내전 중인 2011년 1만9000부에서 2012년 16만3105부로 8배 이상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전 세계의 성서공회 146곳을 통해 배포된 성경(신약·단편·전도지 포함)은 15% 늘어났다.



시리아 크리스천들에게 보급된 것은 성경전서보다 제작 기간이 짧고 갖고 다니기에 편한 단편성서나 성서달력 등이다. 시리아 성서보급 사역을 맡은 마이크 바수 레바논성서공회 총무는 "시리아 크리스천들은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며 "이들이 모두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현지 교회 네트워크를 통해 성경을 전한다"고 말했다.

종교탄압으로 '크리스천 엑스터스' 현상을 보인 이라크에서도 2011년 2만8518부에서 2012년 6만6175부로 132% 늘어났다. 이라크에선 사담 후세인 축출 이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기독교 박해가 극심해졌다. 2003년 140만여명이던 크리스천 수는 현재 33만여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집트에선 2011년 226만1236부에서 2012년 282만4504부로 25% 늘어났다. 시리아와 같이 나눠주기 쉬운 단편성서와 전도지 배포가 증가했다. 최근 수년간 무자비한 기독교 탄압이 이뤄진 나이지리아는 2011년 769만5853부에서 2012년 812만1452부로 증가(6%)했다.

전문가들은 '아랍의 봄' 이후 혼란기를 맞은 이슬람권 등 척박한 환경에서 더 절절하게 복음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데 대한 반발로 이슬람교에 대한 회의가 생기고 영적 갈급함은 커질 수 있다는 견해다.

미 목사, 기부 받으려 텐트 치고 노숙

미국의 한 목사가 이웃들 기부를 독려하기 위해 2주 가까이 노숙을 감행하고 있다고 미국 기독교 매체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텍사스 주 빅센디지역 카우보이 교회의 채드 리 목사는 지난 1일 교회 인근 80번 고속도로에 텐트를 치고 노숙을 시작했다. 가난한 이웃의 생활을 몸소 체험하고 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지역주민들로부터 직접 기부받기 위해서였다. 리 목사는 "많은 사람들이 매일 추위에 떨며 고통 속에서 지낸다"며 주위 이웃을 돕자고 설렘했다.

리 목사는 말끔한 셔츠를 입고 모자 티에 두툽한 점퍼 등 방한복을 겹겹이 입고 고지 생활을 이어갔다. 텐트 밖 모닥불을 쬐며 살을 에는 듯한 추위를 버텼다. 40여명의 성도들은 순번을 정해 목사와 밤을 지새웠다.

리 목사의 노숙을 두고 "미쳤다"고 말하던 주민들도 서서히 변했다. 카우보이 교회에는 목사 안부를 묻는 전화가 쇄도했고 텐트 옆 대형 컨테이너는 주민들이 가져온 인스턴트식품과 장난감으로 가득 찼다. 리 목사는 "하나님이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이라며 기뻐했다.

예루살렘 폭설로 이-팔 동심의 눈싸움

예루살렘에 134년 만의 폭설이 내렸다. 예루살렘 구시가지에서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눈사람을 만들

는 등 130여만 명의 폭설을 한껏 즐기는 모습이였다. 아랍 어린이와 유대 어린이가 눈 위에서 함께 눈싸움을 벌이고 눈사람을 만들었다.



눈은 구시가지의 기독교 인 구역이나 유대인 구역, 무슬림 구역을 구분하지 않고 내렸다. 어린이들도 종교를 구분하지 않고 눈발 위를 굴렀다. 무슬림 구역의 어린이가 유대인 구역으로 눈을 던지면, 유대인 어린이가 되받으면서 까르르 웃었다. 관광객들도 이런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즐겼다. 호주에서 온 레이첼 단지가씨는 "유대교 신자부터 팔레스타인인들까지 모두 눈 위에 하나가 되는 모습이 보기만해도 즐겁다"고 말했다.

예루살렘포스트는 15일 "눈 때문에 예루살렘 시민들이 종교를 넘어 모두 하나가 됐다"며 "여성의 기도가 금지된 '통곡의 벽' 인근에는 여자 눈사람도 등장했다"고 보도했다. 이 눈사람은 이스라엘 여성인권 단체인 '벽의 여성들(Women of the Wall)'이 만든 것이다. 이 단체는 여성들이 예루살렘 서쪽 벽에서 유대교 경전인 토라를 들고 기도하는 것을 금지한 것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이스라엘 북부지역에 내린 눈은 주말을 지나면서 75cm가 넘게 쌓였다. 1879년 이후 최대 적설량이다. 이브라힘 알라예(55)씨는 "내 생애 이렇게 많은 눈이 쌓인 것은 처음 본다"며 혀를 내둘렀다. 예루살렘은 도시 기능이 마비됐다. 학교와 관공서는 11일부터 문을 닫았고, 관광지인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시장들도 대부분 상점이 문을 닫았다.

예루살렘 시내에서만 1500여대의 차량이 길거리에 버려졌고 2000여 명의 시민들이 경찰에 구조됐다. 이스라엘한인교회 등 대부분 교회들은 가정예배로 대체했으나, 일부 유대교 신자들은 눈속을 헤치며 회당을 찾아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안식일인 14일에는 예루살렘과 텔아비브를 연결하는 임시열차가 2차례 긴급히 운행됐다. 폭설로 고속도로가 차단되고 대중교통 운행도 전면 중단된 데 따른 비상조치였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보다 폭설에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이 우선한 셈이다.

가자와 서안 등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부상자가 속출하고 피난민이 발생했다. 도로와 하수도 사정이 열악한 팔레스타인 지역은 피해가 더 컸다. 가자 지구에서는 눈이 녹아 하천이 넘치면서 1만 명이 긴급 대피했다. 비닐하우스 800채가 무너지는 등 농민들의 피해도 컸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번 폭설 피해가 1200만 달러(약 1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팔레스타인 임시수도 라말라도 시내 상점과 시장이 대부분 문을 닫았다. 베들레헴에서 발생되는 마안뉴스는 "이스라엘 교도소에 수감된 팔레스타인 죄수들을 위해 적십자에서 담요를 제공했지만 당국이 배포하길 거부했다"고 15일 보도했다.

미 자선냄비, 익명의 금화 기부 잇따라

미국 각지의 구세군 자선냄비에 익명의 금화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15일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 레이크 주리크의 월마트 앞 구세군 자선냄비에 지난 4-5일간 6500달러 상당의 금화 5개가 나왔다. 금화에는 A와 N 등 각기 다른 알파벳이 찍혀 있었다. 구세군 홍보담당 알리세 청씨는 "기부자가 본인을 알고 싶었다면 편지를 함께 넣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시간 주 워런의 한 대형마트 앞 자선냄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금화 크루거랜드가 발견됐다고 지역 방송 CBS디트로이트가 전했다. 크루거랜드는 1200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다. 구세군의 마크 앤더슨 장교는 "어린이 45명에게 겨울 외투를 선물하고도 남은 액수"라면서 "(고)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 누군가 남아공 금화를 기부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했다.

이 외에도 노스캐롤라이나 주 엘러먼스 카운티의 한 보석 판매점 자선냄비에 11일 올림픽 기념주화 등 1830달러어치 금화 3개가, 아칸소 주 콘웨이 월마트 앞 자선냄비에도 9일 1200달러의 크루거랜드 금화가 들어 있는 등 금화 온정이 곳곳에서 확인됐다.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현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판촉물을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방문하십시오.

상담 환영!!!
300여종 이상 디자인 보유!
2014년 달력주문 받습니다.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12)

정 성 구 박사 | 전 총신대총장, ICSK원장

카이퍼 이후 칼빈주의 학문적 계승자들

카이퍼 이후 자유대학의 5명의 창설교수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외에도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그중에서도 카이퍼의 교의학과목을 이은 헬만 바빙크(H. Bavinck) 박사의 경우를 살펴보자. 바빙크 박사는 윌펠드, 카이퍼와 함께 세계 3대 칼빈주의 신학자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칼빈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라이덴대학에서 '초빙글리의 윤리학'이란 제목의 논문으로 신학 박사학위를 받는다. 그 후 바빙크 박사는 모교인 칼빈신학교 교수를 하다가 카이퍼의 부름을 받아 자유대학교의 교수로서 생애를 보냈다. 그의 대표작은 4권의 '개혁주의 교의학'(Gereformeerde Dogmatiek) (1895-1901)을 출간했다. 그는 이 책을 통해서 개혁주의 교회의 신학적 기반과 토대를 쌓았다. 바빙크는 카이퍼와 마찬가지로 다작가였다. 그는 일생동안 크고 작은 책 80종을 썼다. 바빙크는 교의학자로서 카이퍼보다 더 섬세하고 정밀하게 개혁신학 체계를 완수했다. 바빙크는 카이퍼의 신앙노선을 그대로 따르면서 개혁주의신학자로 대성했고 그의 저작은 후일 개혁주의 교의학의 거의 표준적인 교과서가 되었다.

그 외에도 실천신학자 비스터벨트(P. Biesterveld), 경제학에서 디

펜호르스트(P. A. Diepenhorst)가 있다. 그는 자유대학에서 '칼빈과 경제'란 제목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신약해석학의 대부 흐르쇠이데(F. W. Grosheide) 등도 셀 수 없고, 구약학의 거물 알더스(G. Ch. Aaldes) 그리고 기독교 교육학자로서 카이퍼의 사

상적 영향이 얼마나 대단한 것임을 보여준 사례이다. 그들은 거의 모두가 자유대학교에서 교육받고 훈련받은 인사라는 사실이다. 필자가 지난 40여 년 동안 직접 만나서 교제하고 관련했던 분들 중으로 살펴보면 대개 다음과 같다.

카이퍼 사상을 가장 학문적으로



헬만 도예베르트, 카이퍼 사상 가장 학문적으로 체계화 카이퍼 칼빈사상 북미주에 큰 영향 기독교대학 속속 설립

상체계를 역면 그대로 물려받은 윌 펴 인크(J. Waterink)는 칼빈주의 교육운동의 모델이었다. 그리고 카이퍼의 칼빈주의적 정치 이론을 그대로 계승한분은 콜리인(H. Colijn)이 있다. 그는 칼빈과 흐룬 그리고 카이퍼의 사상을 정통으로 이어받아 반혁명당 당수가 되었고 후일 수상에 올랐다.

그리고 최근까지의 각계각층에 나타난 카이퍼의 효과는 대단하다. 물론 카이퍼의 사상을 비판한 학자로는 스킨더(K. Schilder) 박사가 대표적이라면, 헬만 도예베르트 박사를 중심으로 그 후에 기라성 같은 정치가와 사상가들이 많이 일어나 각계각층에 칼빈주의적 세계관 건설에 앞장섰다. 이는 한 사람의

체계화한 학자로는 헬만 도예베르트(Herman Dooyeweerd, 1894-1977) 박사를 들 수 있다. 그는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가 주도하는 신 칼빈주의 운동의 환경에서 자라왔고 1917년 헬만 바빙크 아래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는 법조계, 관계, 학계에 위대한 족적을 남겼다. 1923년에 정치 원론으로서의 '칼빈주의적 영역주권사상'을 발표했다. 그는 아브라함 카이퍼 연구원의 정기 간행물인 '기독교 정치학'의 편집책임자도 있었다.

그의 수많은 저작 중에는 '기독교 철학' 수립의 대저인 '법개념의 철학'(Wijsbegeerte der Wetsidee, 1935)을 발표함으로 칼빈주의 철학의 기초를 놓았다. 같은 해 도예

베르트 박사는 볼렌호번 박사와 함께 칼빈주의 철학회(De Vereniging voor Calvinistische Wijsbegeerte)를 창설하고 개혁주의 철학(Philosophia Reformata)이란 잡지를 내면서 칼빈주의 사상을 체계화, 조직화 하였다. 그 후 칼빈주의 세계관 운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도예베르트와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도예베르트 박사의 사상을 비판적 시각에서 보아도 없지는 않지만, 카이퍼의 사상을 따라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왕권을 높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명을 일으키는 기독교 세계관을 건설하였을 뿐 아니라 칼빈주의적 시각에 입각한 삶의 이론을 정리한 20세기의 최대의 기독교 철학자였다.

카이퍼의 계승자 중에는 도예베르트와 함께 기독교 철학을 이끈

피 사상을 전수했다. 그리고 미술사 교수로서 현대 젊은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로프마커(Hans R. Rookmaaker, 1922-1977) 박사를 들 수 있다. 로프마커 박사는 화란의 칼빈주의적 예술 평론가이자 자유대학교의 미술사 교수였다. 그는 프란시스 슈퍼와 함께 라브리운동의 선구자이며 화란의 엑크엔빌(Ek en Wiel)이란 라브리 회관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예술과 인생과 철학을 강의했다. 로프마커는 칼빈주의적 예술 평론가로서, 삶은 종교이고 인간은 종교적 존재라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그래서 예술가의 모든 예술적인 행위는 가치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술가의 표현 방식은 작가의 감정적인 표현이

이 북미주에 크게 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이다. 특히 미국의 칼빈대학, 돌트대학(Dordt College), 트리니티기독교대학, 캐나다에는 리디머대학(Redeemer college) 킹스유니버시티대학, 기독교학문연구원 등 많은 대학들은 카이퍼의 칼빈주의 사상을 학교의 지상목표로 삼고 있다. 북미주에서 카이퍼의 칼빈주의 사상을 실천하거나 학문적 대가를 이룬 사람은 에반 러너(E. Evan Runner)이다. 그는 미국의 걸출한 칼빈주의 철학자, 칼빈대학의 철학 교수였다. 그는 휘튼대학, 웨스트민스터신학교, 자유대학교에서 도예베르트와 볼렌호번에서 사사하고 북미주에 칼빈주의 운동의 전도사가 되었다. 1956년에 '개혁주의 학문 연구회', 1967년에는 '기독교 학문 연구회'를 주도 했다.

또 골든 스페이크만(Gorden J Spykman, 1926-1993)은 목사님 칼빈대학교수로서 북미주에 중흥무진 활동하면서 칼빈주의적 학문 운동에 앞장섰다. 그는 자유대학을 졸업하고 카이퍼의 칼빈주의적 세계관을 북미주에 정착시키는데 앞장섰다. 그 외에도 스프롤(R.C.Sproal), 반틸(C.Van Til), 늦스(Knutsen) 등 많은 학자들이 카이퍼의 칼빈주의 신학과 신앙의 영향 아래서 활동했다. 특히 금세기의 세계관으로 예술과 인생을 보는 눈을 열게 했다. 필자는 그와 더불어 라브리에서 약 4년 동안 사립과 가르침을 잇을 수 없다.

그 외에도 공학자로서 칼빈주의적 철학자가 된 정치가인 가우즈바르트(Bob Goudzwaard, 1934) 등은 각기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지만 모두가 카이퍼의 칼빈주의 사상에 기초한 사람들이다. 이들 말고도 화란에는 기라성 같은 학계, 정계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지만 여기서 모두 거명할 수 없다.

한편 카이퍼의 칼빈주의 사상

아니라 신앙의 표현이란 것이다. 그의 주저인 '현대 예술과 문화의 죽음'(Modern Art and the Death of Culture, 1970)에서 그는 칼빈주의의 세계관으로 예술과 인생을 보는 눈을 열게 했다. 필자는 그와 더불어 라브리에서 약 4년 동안 사립과 가르침을 잇을 수 없다.

그 외에도 공학자로서 칼빈주의적 철학자가 된 정치가인 가우즈바르트(Bob Goudzwaard, 1934) 등은 각기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지만 모두가 카이퍼의 칼빈주의 사상에 기초한 사람들이다. 이들 말고도 화란에는 기라성 같은 학계, 정계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지만 여기서 모두 거명할 수 없다.

한편 카이퍼의 칼빈주의 사상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나 아픔이나 배고픔보다는 적게 느끼시고 덜 아프시고 덜 배고프셨다면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배고픔을 예수님이 모두 감당하신 것은 아니라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더구나 십자가에서 마지막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하셨는데 우리 죄를 대속하는 예수님의 죽으심도 우리 죄를 100% 다 속죄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추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와 똑 같은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으며 우리가 아픈 만큼 아프셔야 했고, 우리가 배고픈 만큼 배고프셔야 했으며 우리가 당하는 고통만큼 똑같이 당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 부유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아무

이메일:skc0727@yahoo.com (다음호에 계속)

칼럼 음악목회 (20)

성탄절 음악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소 소장



크리스마스가 절정에 다다르면서 쇼핑물이나 관광서나 길거리에서나 가는 곳마다 흥겨운 캐롤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분위기 때문인지 몰라도 사람들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밝고 명랑해보입니다. 분명히 무엇인가 좋은 일이 있는 것 같고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세상 사람들은 왜 기뻐할까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것 일까요? 아니 여러분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왜 기쁘십니까? 정작 우리가 기뻐해야 할 진정한 이

유를 찾기에 세월이 갈수록 어려워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탄절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는 절기의 칭호는 갈수록 없어져가고 오히려 HOLIDAY SEASON 또는 SEASONS GREETINGS 라는 절기의 칭호로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절기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캐롤이 성탄절음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교회와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슨

노래를 불러야 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성탄절은 세상 죄를 감당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현현하신 하나님, 만백성을 구원할 자 메시아의 탄생을 기념하고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이 땅 위에 즉 내 자신에게 임하도록 그 은혜를 수용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면 그 분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왜 하필이면 가장 낮은 곳, 마구간에 그리고 말구유에

누이셔야만 했는가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환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가난과 기근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그것은 곧 우리 인류의 죄상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원죄가 생겨 죄가 전수되어 우리 모든 인생이 죄악 중에 출생하고 죄를 연습하며 죄를 즐기며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 사람이 아니라 자연도 이 세상도 모두 저주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가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의 짐까지도 다 감당하시려고 즉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나 아픔이나 배고픔보다는 적게 느끼시고 덜 아프시고 덜 배고프셨다면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배고픔을 예수님이 모두 감당하신 것은 아니라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더구나 십자가에서 마지막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하셨는데 우리 죄를 대속하는 예수님의 죽으심도 우리 죄를 100% 다 속죄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추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와 똑 같은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으며 우리가 아픈 만큼 아프셔야 했고, 우리가 배고픈 만큼 배고프셔야 했으며 우리가 당하는 고통만큼 똑같이 당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 부유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아무

리 아프다고 해도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해도 아무리 배고프다고 해도 주님께서 당하신 만큼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로 풍요케 하시려고 하셨다는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하겠고 나를 구원하려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 안에 모시고 영원히 영원히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돌려야 할 것입니다. 교회마다 화려한 장식과 파티를 계획하기 보다는 우리 크리스천이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내면적인 의미를 찾아 교회와 성도들이 감사의 찬양을 주님께 드리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져봅니다.

▲연락처: (714)699-0210

생명의 숲

생명을 말한다. 당신은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예수 안에서 목마름이 해결되었는가? 예수생명 안에서 자라고 나누는 풍성한... 한신교회 이야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문재 지음 / 320면 / 14,000원

기다리는 아버지

The Waiting Father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귀향"으로 잘 알려진 비유 설교집

인생의 궤도를 잃고 방황하는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을 발견하고 그 길로 들어서도록 인도한다.

"집 나간 탕자를 설교할 땐 자연스레 나 자신과 오버랩 되면서 그보다 더 형편없는 자리는 생각이 몸 둘 바를 몰랐으며, 집안에 머물면서 동시에 집을 떠나 사는 첫째 아들처럼 허해와 같은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위선자가 다른 이나 나 자신임을 발견하고는 가슴을 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정성훈 지음 / 272면 / 11,000원 390면 / 13,000원

은쟁반 위의 금사과

Golden Apple on the Silver Tray

민음의 사람들이 가진 또 하나의 달력, 교회력

교회력과 절기에 맞추어 편집된 이 설교집은 하나님의 구원역사를 이루기 위해 시의적절하게 때에 맞춰 선포된 말씀으로서 단순히 기계적인 반복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를 통해 성도들에게 말씀의 성육화가 이루어지도록 고민한 흔적들이 역력하다.

이 책을 통해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성이 회복되고, 위대한 영적 변화들이 나타나고 증거되는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정성훈 지음 / 272면 / 11,000원 390면 / 13,000원

이문재 목사의 다른 저서들

	성경의 은유 508면 / 17,000원
	변화 344면 / 12,000원
	생명의 초성 272면 / 10,000원
	성령이 임하시면 240면 / 9,000원
	광야의 명성 256면 / 8,000원
	당신이 있으니까 내가 있고 250면 / 9,000원

www.qumran.co.kr 서울 중로구 이화동 184-3 qrbbooks@daum.net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169. 창조론의 기초(19) - 최근에 창조된 태양계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과 혜성, 그리고 왜소행성(dwarf planet) 등으로 구성된 태양계는 46억년전부터 존재하기 시작했다고 배운다. 수 광년 정도에 흩어져 있었던 분자구름(molecular cloud)이 중력으로 뭉쳐 태양이 만들어지고 행성들이 생겨났다고 한다. 태양계가 돌아가고 있는 이유는 이 가스들이 인력으로 갑자기 뭉치면서 회전이 생겨났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공상과학영화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사실 아직까지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모르는 것처럼, 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는 세상 과학자들의 골칫거리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는데 46억년전에 태양계가 만들어졌다는 주장은 얼마나 확실한 것일까?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Enceladus)

토성은 60개나 되는 위성을 가지고 있다. 이 위성들은 지구의 달처럼 토성을 공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 여섯 번째로 큰 위성이 엔셀라두스다. 이 위성은 거의 모든 태양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태양계에서 가장 밝은 물체다. 이 위성은 표면이 얼음으로 덮여있기 때문인데 그 아래에는 액체의 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한때는 여기에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법석을 떨었던 적이 있다. (그러나 물만 있으면 생명체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마치 깨진 벽돌조각처럼 생긴 돌 한 개만 발견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뉴욕 같은 대도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엔셀라두스 위성에서는 물이 표면을 뚫고 지구의 게이저(geyser, 간헐적으로 공중으로 솟구쳐 나오는 샘)처럼 엄청난 힘으로 뿜어져 나오는데 대기 온도가 너무나 차갑기 때문에 바로 얼어 눈이 되어 내린다. 엔셀라두스의 이런 매우 활발한 움직임은 아직까지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 작은 위성이 수십억 년 동안 이런 분출을 지속할 수는 없다. 이 위성은 그렇게 오랫동안 존재할 수 없다는 증거다.

토성의 고리들
토성은 목성 다음으로 큰 행성이다.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거대 가스" 행성이다. 토성은 아주 특이한 고리들을 가지고 있어서 특이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행성과 혜성 그리고 질서가 있는 태양계는 최근 창조의 증거물이다

다. 공전 횟수가 늘어난다면 혜성은 계속 작아지게 되므로 혜성은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 혜성들 중에 하틀리 2라는 작은 혜성은 1986년에 발견되었는데 공전기간이 6.5년으로 아주 짧다. 태양계가 46억년 되었다면 이 혜성은 이미 옛날 옛날 아주 옛날에 없었어야 할 것이다. 아니면 수십억 년 전에는 태양보다 더 커서 태양이 이 혜성을 중심으로 공전했어야 할 것이다.

수성(mercury)의 자기장
태양에 가장 가까운 행성인 수성은 지구 무게의 약 5.5% 정도로 행성들 중에 가장 작다. 지구

처럼 수성도 자기력이 있는데 모든 다른 행성들과 마찬가지로 자기력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수성의 자기력 감소 속도는 다른 행성들에 비해 무척 빠르다. 관찰 결과에 의하면 지난 33년 동안 수성의 자기력 감소는 무려 4%였다. 지난 200년 동안 측정된 지구의 자기력 감소 속도는 100년에 6.3% 감소하는 비율이었다. 만약에 수성이 수십억 년 되었다면 자기장이 이미 오래 전에 없어졌어야 한다. 물론 다른 행성들의 자기장도 모두 다 없어졌어야 한다. 태양계는 수십억 년이나 오래 되었을 리가 없는 것이다.

혜성 하틀리 2(Hartley 2)
최근 금세기에 가장 밝은 혜성인 아이손(Ison)이 태양을 지나가고 있다. 지난 11월 중순에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있었고 11월 말에는 태양 뒷면을 돌아 12월 중순 경에 다시 지구 가까이 오게 된다. 이 아이손 뿐 아니라 혜성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타원 운동을 하고 있는데 태양에 가까이 올 경우에만 태양 반대쪽으로 꼬리를 보인다. 그 이유는 혜성이 얼음과 먼지 등으로 되어있어 태양열에 녹아 떨어져 나가는 데 그것이 꼬리를 형성하는 것이

지고 차가운 행성이 되어있어야 할 것이다.
해왕성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태양에서 받는 에너지보다 2.7배나 더 많은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다. 해왕성의 크기로 볼 때 수천년 동안 에너지를 발산할 수는 있지만 수십억 년 동안 에너지 발산이 지속될 수는 없다. 천왕성은 해왕성과 같은 성분과 같은 크기를 가진 행성이지만 내부 열을 발산하지 않는다. 세상 관점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당황스러운 일이다. 세상에서는 이 두 행성들이 비슷한 조건에서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태양계는 항성인 태양, 행성들, 그리고 천체가 아닌 운석이나 혜성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땅이 있는 행성으로는 수성, 금성, 지구, 그리고 화성이 있는데 대부분 암석과 금속으로 되어있다. 목성, 토성, 천왕성, 그리고 해왕성은 대부분 가스나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얼음들은 비교적 높은 녹는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독특한 물체들이 똑같은 성분인 분자구름에서 우연히 생겨나서 수십억 년 동안 일정한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 정상적인 과학법칙을 통해서

“태양계, 분자구름이 중력으로 회전해 생성” 주장 수십억 년 동안 일정한 법칙 따라 움직일 수 없어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다.
앞에 소개한 태양계의 현황들은 태양계가 불과 6000여 년 전 성경의 창조자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설명과 잘 어울릴 수 있다. 질서는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법칙은 많은 과학 법칙들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법칙이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6000여 년 전 창조주에게 그 천체들을 하늘에 두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형상들이 시간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셨다. 이 창조자의 말씀을 거부한 믿음은 비과학적이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하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시8:3-4).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구원자로 오신 창조주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계절이 되기를 바란다.

여러 거대 행성 내부의 열
가장 큰 행성인 목성의 경우 태양에서 받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다. 목성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양은 무한하지 않으므로 영원히 태양에서 받은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발산할 수는 없다. 시간이 흐르게 되면 자연히 발산할 수 있는 내부 에너지가 고갈될 것이다. 만약 이 목성의 나이가 백백가설이 말하듯이 태양계의 나이가 46억년이라면 지금 목성은 발산할 수 있는 에너지는 다 없어

영성칼럼



이희병 사모
(뉴저지복음장로교회)

믿음의 번지점프 하는 옴의 아내

옴의 아내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를 보면 열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재산도 자녀도 남아가고 몸마저 폐인이 되어 인생 완전 중된 것으로 보이니 오죽했으면 그 부인이 입에 거품 물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욘2:9) 악담을 겁 없이 퍼부었을까요. 모든 것을 잃고 나니 옴은 두려워하던 것이 옳았다고 고백합니다. “범사에 반듯해야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주시지 않겠는가?” 받은 복을 유지하기위해 아이들이 생일이면 돌아가며 잔치하고 핏가땀가 부자집 아이들답게 노는 날이면 불타고 죄를 범하여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염려되어 성결케 하고 번제를 드리는 등등 늘 긴장하고 얼마나 내심 전전긍긍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잘나갈 때는 남편이 믿는 하나님 덕에 유복한 것 같아 옴이 결벽증같이 조심해 보여 따라가다가 버거워도 그저 남편이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많은 재산 다 날아가고 심지어 열 아이들이 다 죽었으니 그야말로 눈이 뒤집혀서요. 약에 바치는 대로 파는 모습 속에서 옴 본인이야 하나님을 의식하는 예배중심의 삶이 자신의 선택이지만 부인은 남편이 살아가는 극도의 종교의 삶의 굴레가 버거웠고 마음으로부터 남편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은 아니었음이 드러납니다. 습관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에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옴의 아내도 평소에도 불평이 입에 붙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말이면 다 말인가? 누워서 침뱉기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쌓여온 불만을 분출하여 스스로에게 저주를 퍼부은 어리석은 여인입니다.

평소 때도 고난의 때도 남편과 마음이 하나되지 못한 영 딴 세계에서 물 위의 기름인 모습입니다. 가장 힘든 남편에게 곁에서 함께 힘을 북돋는 위로는 커녕 오히려 죽으라고 언어폭력으로 괴로운 옴에게 짐만 된 못난 아내입니다. 오늘날 여성들의 목소리가 커지며 부부의 삶이 반드시 부부라는 포장을 열어보면 서로에게 도무지 보완은커녕 각자 자기 입장에만 충실하여 서로의 가슴에 못을 박으며 지옥이 따로 없는 역기능 가정의 바로 이 모습입니다.

남편에게 그리 퍼부었을 때 옴이 아내에게 “어리석은 여자들같이 말을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믿음의 말을 한 후 옴이 아내를 버렸다가 아내가 달아나버렸다는 내용도 옴이 재혼했다는 내용도 전혀 없고 없는 듯 무대 뒤에 조용히 있다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돌이키실 때 열 명의 자녀를 주십니다.

너무 힘들어 찾기에 내뻘었으나 옴의 곁에서 옴의 책망을 깊이 생각하며 그의 곁을 묵묵히 지켜낸 것으로 보입니다. 살다보면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서 어떤 모양이라도 견디기 너무나 힘들게 밤을 지나게 됩니다. 그 때에 종종 여자들은 넘어지길 잘해서 너무 쉽게 옴의 아내처럼 어리석고 경박스런 행동에 동참합니다. 그래도 더 이상 무슨 좋은 것이 나올 것이 없다고 남편을 등지고 떠나지 않고 곁에만 조용히 붙어있지만 하면 그의 축복이 회복될 때 함께 덩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입지 않겠는가? 큰 위로가 됩니다.

믿음의 아내들이여, 아무리 아내의 소견에 힘겨운 남편이 우습게 보일지라도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터널이 끝났어보여도 반드시 킁킁한 터널이 끝나고 밝은 밖으로 나오는 때가 옵니다. 설령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는 친구들이 옆에서 흔들려만 해도 힘겨운 배우자에게는 차라리 묵묵히 곁을 지키고 있음이 최고의 위로가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하나님이 아닌 무한한 긍휼의 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번지점프를 합니다. 모든 것을 두 배로 축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재산도 두 배, 죽은 아이들도 자녀이니 새로 낳은 자녀까지 두 배이고 본인들도 남편은 자기만의 행위구원에서 은혜구원으로 아내의 남편을 통한 믿음에서 죄사함 받은 구원의 복음으로 점프한 믿음으로 새로워진 배우자를 축복으로 받았 습니다. 하나님이 돌이켜 주시는 남편의 회복이 아내들의 삶이 더불어 함께 피는 축복의 통로임을 생각합니다. 믿음의 남편이 나의 최고 복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곁에서 기도하며 조용히 함께 주어진 삶을 복으로 나누는 현명한 아내가 돼야겠다. 새롭게 마음을 다 잡아봅시다.

이메일 : heenlee55@hanmail.net

미주판 2014년 다이어리 2014 DIARY

up to 50% 세일

FREE!

<20개 이상 단체 주문시>
다이어리에 인쇄해 드립니다.
(교회명, 전화번호, 주소)

<영문판>
(특대)

일반영문판

연말연시 특별세일

기간 2013년 11월 ~ 12월 말까지

Sale 1.
호산나 서점 점포정리 - 전품목 up to \$2.00

(호산나 서점이 경기 불황 침체로 점포 정리함. 기독교서적센터에서 전품목 인수하여 현 가격과 상관없이 개당 up to \$2.00씩 판매함) 주석류, 일반 신앙서적류 일체/찬송, 찬양류/듣는 성경, CD/DVD 일체, 말씀성구, 성화 액자류 / 성구로된 컵종류

Sale 2.
“기독교서적 센터에서는 전품목 up to 50% 세일”

큰글자 성경류, 한영성경류, 신앙서적류/각종 말씀성구, 성화액자, 말씀 자수로 된 태월류 성구로 된 컵 종류/수천종류 말씀 선물류 등

Sale 3.
“기독교서적센터에서는 강대상류 up to 30% 세일”

* 크리스탈 강대상·사회상, 선찬상, 화본대, 강단의자, 현금류, 현금보조대, 십자가 기타
* 나무강대상·사회상, 선찬상, 화본대, 강단의자, 현금함(대/중/소), 십자가(특대/대/중/소) 분당 장의자, 분당 개혁의자 기타

올해내계주신말씀 책갈피

“하나님의 말씀으로 희망찬 한해를 맞이하세요!”



2014년 *올해내계주신말씀 책갈피'는 고급피 메듭으로 만들어짐. 한글, 한영으로 전면디자인 20가지, 성구 500구절로 만들어짐. *12월10일까지 주문시 교회명, 전화번호, 주소 인쇄해 드립니다.

인생의 1/3을 잠(수면)으로 보냅니다. 하루의 쌓인 피로를 풀어주는 밤... 메일 야곱의 돌베개



특 징
- 코골이 예방
- 목주름 예방

숙면은 양보다 질... 만가지 보약보다 쾌적한 수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수면의 효율을 극대화 하도록 만들어진 목주름 예방 목베개 바로 혈액순환개선이 되도록 설계된 목주름 예방 목베개입니다.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영업시간 9:30AM~7:00P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TEL. (323)737-7699, (323)737-4526 / FAX. (323)733-8850
Toll Free: (800)669-0451 / 인터넷 쇼핑물: www.koramdeo.com
E-mail: cbc0191@hotmail.com



목회서신

땡큐!!(Thank You)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미국에 살면서 가장 많이 주고받는 말 중 하나는 단연 "땡큐(thank you)"입니다. 미국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땡큐(thank you)"나 "플리즈(Please)"라는 말을 쓰게 하려고 엄마가 자녀에게 "What is the magic word?(마법을 부리는 말이 뭐지?)"라고 묻습니다. 것처럼 "땡큐"는 미국인들의 삶에 배어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감사가 너무 형식적이고 습관적이라고 말합니다. 가벼운 말보다는 마음

로 하는 감사가 진짜 감사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혀에 붙기 전까지는 아이에게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작가인 제임스 알렌은 "감사에 보답하는 것보다 더 다급한 임무는 없다"(No duty is more urgent than that of returning thanks)라고 말했습니다.

감사의 표현은 마음의 바른 자세이고, 사려 깊은 행동이고, 믿음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5:18).
 한해를 마감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원하십니까? 먼저 감사의 대상을 생각하세요. 감사의 대상이 머리에 떠오르면 감사를 표현하기 쉬워집니다. 생각할 수 있

으면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If you can think, you can thank). 그 다음에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감사의 대상으로부터 어떤 사람, 격려, 도움, 친절, 기도, 섬김, 은혜, 혜택을 받으셨나요?
 말로 감사를 표현하세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엡5:4).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은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가 쓰고 있는 감사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영성의 깊이를 드러내는 좋은 예입니다.
 글로 감사를 표현하세요. 감사 일기를 쓸 수도 있고 또한 다윗처럼 시로 감사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못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시57:9). 글의 힘은 대단합니다. 링컨은 한 신문기자가 "링컨은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다"라고 쓴 글에 큰 용기와 격려를 얻었다고 합니다.

가능하면 친필로 감사의 편지나 카드를 보내세요. 받는 사람이 매우 기뻐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기도로 감사를 표현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4:6). 감사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기도를 드려주세요. 나의 가족과 이웃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베푼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기도를 올리세요.
 물질로 감사를 표현하세요. 식사대접이나 작은 선물로 나의 감사한 마음을 감사 대상자에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또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하세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러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고후9:11).
 마지막으로는 예배로 감사를 표현하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

의 행위를 옮겨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시50:23).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입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좋은 울릴 때까지 울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해를 감사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성도의 특권이요 능력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세요. 땡큐를 표현하세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땡큐를 전하는 연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베델한인교회 손인식 담임목사 북한선교사 파송예배 및 송별예배가 성황리에 열렸다. 타원안은 송별예배에서 손인식 목사부부와 2014년부터 담임목회를 시작하는 김한요 목사 부부

손인식 목사 북한선교사 파송 및 송별예배 베델한인교회...북한사역 위한 기도후원 당부

베델한인교회 손인식 목사 북한선교사 파송예배 및 송별예배가 15일 오후 6시30분에 성황리에 열렸다.
 손인식 목사는 "담임목사가 아니라 자신을 생각할 때 상상이 되지 않는다. 아마도 2014년 1월1일은 집에서 베델교회 담임목사가 아닌 할아버지로 지내게 될 것 같다고 언급하며"앞으로 한국과 미국 그

리고 유럽등지에 3분의1씩 머물 예정이다. 북한을 흔들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이 평양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연합기도운동을 펼쳐나가 고자 한다. 이미 기도응답이 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을 위한 사역을 위해 기도후원 바란다"고 말했다.
 김한요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파송예배는 박희민 목사, 김상복 목

사, 최홍준 목사, 한기홍 목사 등 한국교회와 미주한인교회 목회자들의 동영상 메시지가 소개됐으며, 본 교회 음악감독 김종만 장로의 헌정곡을 연합성가대가 불렀다.
 이어 손경일 목사(새누리교회 담임)가 '떠남에의 축복'(창12:1-5)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빌 밸릭 박사(C&MA 노회장)가 파송기도를 했다.
 또한 손인식 목사 가정의 '평생 헌신의 사진회고'라는 제목으로 손목사의 사역과 인생을 담은 사진을 영상으로 소개했다. 또한 손수진 자매와 김소원 자매의 찬양과 베델 출신 담임목회자들의 축송이 있었다.
 이어 베델한인교회에서 손인식 목사와 동역한 교인들의 영상메시지를 통해 베델교회를 떠나는 손목사를 추억하며 아쉬움을 달래기도 했다.
 이날 예배는 어린이 합창단의 순서와 송정명 목사(월드미션대학교 총장)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미주성결대학교 후원의 밤 및 명예박사수여식 명예박사, 엘리자베스 쉘스 크라우스·J.B.크라우스

미주성결대학교 후원의 밤 및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이 15일 오후4시 미주성결대학교 채플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1부 예배와 2부 비전나눔, 그리고 3부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으로 진행됐다.



제9회 미주성결대학교 후원의 밤 및 명예박사학위 수여식이 본교 채플에서 열렸다. 사진은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회원들이 합창하는 모습

본교이사장 조종근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는 미주성결교회 부총회장 박광원 장로가 기도를, 본교총무이사 이경원 목사(오렌지중앙교회)가 성경봉독을 했으며, 클리넷과 피아노 특주가 있었다. 그리고 유동선 목사(전 해외선교위원장, 춘천중앙)가 '사람의 능력'(마19:16-22)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전 총회장 송중복 목사가 축도했다. 대학원장 황의정 박사의 사회로

열린 2부 비전나눔시간은 본교이사장 문병용 목사(유니온교회 담임)가 기도를, 교무처장 윤석길 박사가 학교현황소개, 본교학생들의 간증이 영상으로 소개됐으며, 이상명 박사(

미주장신대 총장), 김영 연방의원 보좌관이 후원사를 했다. 이어 황예행 박사(멕시코 선교사)가 후원약정을 위한 기도를, 여전도회전국연합회(지휘 황에스터 목사)가 특송을 했으며 내빈 및 후원자 소개가 있었다.
 3부 명예박사 학위수여식은 윤석길 교무처장의 사회로 시작, 황의정 대학원장이 학위기 낭독, 유종길 총장이 학위수여를 맡았다. 이날 명예박사는 엘리자베스 쉘스 크라우스 박사와 J.B.크라우스 박사가 받았다. 이어 김광렬 박사(미주성결교회 전 총회장)가 격려사를, 이경근 박사가 축사를 했으며 드림중창단의 축하에 이어 베티 크라우스 박사가 답사했다. 이날 행사는 강준식 목사(시애틀 성결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목사장로부부찬양단 제6회 정기연주회 성황

남가주 목사장로부부찬양단(단장 이상기 목사, 지휘 전중재 교수) 제 6회 정기연주회가 15일 저녁 7시 월서연합감리교회(담임 정영희 목사)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목사장로부부찬양단 제6회 정기연주회가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부단장 박재웅 목사의 기도로 시작된 이날 연주회는 '오 인도하옵소서', 'CCM모음곡', '주를 찬양하라', '주 날 인도하시네', '기뻐 찬양 알렐루야'등을 불렀다. 또한 세리토스장로교회 헤세드남성중창단과 나성열린문교회 살롬권사찬양대가 찬조 출연해 목사장로부부찬

양단 연주회를 빛내주었다. 이날 연주회는 헌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 '알렐루야'를 출연자들이 연합으로 부른 후 이상훈 목사(성광장로교회 담임)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교장리더십·교육패러다임 특강 미드웨스트대학교 제9차 국제교육협력컨퍼런스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세인트루이스에 위치한 미드웨스트대학교(Midwest University, 총장 제임스 송 박사)에서 제 9차 국제교육협력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중국, 몽골, 아프리카 등의 현지인 교장들이 참석해 교장 리더십과 교육 패러다임에 대한 특강을 들었다.

이번 참가자 중에는 북경 인민대학교 인문대 학장을 비롯해 인민대학 교수(중국교장 교육자만 총국장), 광둥성 교장총연합회 회장, 몽골에서는 전국교원총연합회 부회장, 교육청 고위관리, 중, 고등학교 교장들이 참석했다.
 강사는 미주리 주정부 교육부장관 Dr. Chris L. Nicastor, 중국인민



참석자들이 미주리 주교육부장관실을 방문 기념 촬영했다

대학교 인문대학장 Dr. Jiazhou Sun, 몽골국립대학교 총장 Dr. Yanjmaa Jutmaan, Holt 고등학교 교장(린던우드대학교 교장리더십

교수), Dr. Mark S. Penny (Lincoln County R-III 교육구청장), 미조리 주하원의원이며 미드웨스트대학교 이사장인 Rep. Lindell Shumake, 학교 카운슬링전문기관인 PFH 부총재 Mr. Jim Wallis, 국제교육협력기구 총재 Dr. Bill Federer, 국제교육협력기구 IEC 이사장, 제임스송 총장 등이 강이었다. (기사제공: 미드웨스트대학교)

나노 기술의 놀라운 칼슘흡수

BONSTRONG

인제대학교 나노 공학부 공동 기술개발
Bonstrong 이 약속드리는 골다공증 없는 세상

INHIS Inc
POWERBOLIC USA
laboratores Inc
Made in USA

동부: 737-570-3611
서부: 310-903-1792

하나님 은혜 그 역사의 재발견

성지순례 선교여행

Pilgrimage Holyland Mission Vision Trip

순례코스 일정	MISSION VISION TRIP
A 코스: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출애굽 여정따라) 11박 12일	1) 멕시코 칸쿤(유카탄 반도)쿠바
B 코스: 터키 그리스 베트남 (바울의 전도에 따라)11박 12일	2) 페루 아마존(잉카문명)
C 코스: 프랑스 스위스 독일체코 이태리 (유럽 종교개혁지 탐방)11박 12일	3) 남미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4) 알라스카(에스카모) (인디언)

세계성지문화연구소 중동북아 선교회
World Holy Land History Culture Institution & Mid East North Asia Mission

소장 권해수 선교목사
Chief Ref. Jason H. Kwon

757 E. Main St W, 212 Lansdale, PA 19446
TEL (267)972-8537 FAX (208)485-1013
Email: jasonkwon777@yahoo.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내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아리조나 산속에 있는

기도원 판매

20에이커 안에 작은 2층집 1채
소매배실 1개
개인 기도실 4개
큰 라마다
관심 있으신 분 연락바랍니다

(623)374-0691
(623)326-5532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설교/비디오 복사

SONY PHILIPS LG

BLANK CD
BLANK DVD
SALES

공 디스크 저가판매!

DiscMaster
자동형 복사 & 프린터

초간편 복사기

BURN + PRINT

전용용 물티슈 판매

TOLL FREE: 1-866-817-4094 (ext.101 or 102)
www.producer.com
4010 Valley Blvd., #105, Walnut, CA 91789

생명의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백화점

2707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4538 Fax:(213)382-1154

www.lifebook.co.kr
Email: wordoflifela@hanmail.net

로스앤젤레스 지사 워싱턴DC 지사

TEL. 800.347.7057 TEL. 800.228.2928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길스 건너편)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동부교계 기사판



부목사 청빙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담임 이용걸 목사)에서 부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가 인정하는 신학교를 졸업하고(M.Div) 영주권/시민권자이며 이중언어가 가능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이력서, 목사안수증명서, 학력증명서, 설교CD 2개, 목사추천서(2인). 서류제출마감은 2014년 1월 31일.

이메일: yspcpastor@gmail.com
문의: (215)385-6086 김인국 목사

뉴욕병원선교회 연말사역

뉴욕병원선교회(회장 김영환 목사)가 연말사역을 위한 후원을 기다리고 있다. 행사내역은 12월 21일(토) 오후 1시30분 동아일랜딩양로원 성탄예배, 음식과 선물대접 12월 21일(토) 오후 1시 아씨플라자 정문 앞 사랑의 쌀 나누기.

문의: (914)393-1450

뉴욕효신장로교회 재난지역 돕기 자선음악회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가 주최하는 재난지역(필리핀, 일본 등) 선교지원을 위한 자선음악회가 오는 22일(주) 오후 6시 동 교회에서 열린다. 연주곡은 헨델의 메시아로 티켓은 20달러. 양군시 장로지회로 소프라노 박진원, 서혜영, 알토 조공자, 테너 한문선, 베이스 박요셉과 피아노 이주연이 출연한다. 또한 동 교회는 성탄절과 연말을 맞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23일(월)부터 30일(월)까지 멕시코 참포탄 지역과 마야페룬에 살고 있는 과테말라 난민들을 방문하고 선한목자장로교회에서 집회를 갖는다. 선교지 방문은 문석호 목사와 12명의 성도들로 구성된다.

문의: (718)762-5758

독일어 및 히브리어 무료강좌

뉴욕 뉴저지에 거주하는 목사, 전도사, 신학교 학생들을 위한 독일어, 히브리어 무료강좌가 열린다. 강사는 Chaim Frank, 한국어 통역이 가능하다. 1차는 12월 22일(주) 오후 4시-오후 5시30분 2차는 29일(주) 오후 4시-오후 5시30분. 장소는 뉴저지 9 Church Street, Kingston.

문의: sussesfrauy@hotmail.com

뉴욕전도협의회 송년 감사예배

뉴욕전도협의회(회장 지인식 목사) 송년 감사예배와 회일 가족잔치가 성탄절인 25일(수) 오후 6시30분 플러스 대동연회장에서 열린다.

문의: (347)408-4034

“힘 합하여 발전하는 목사회로”
뉴욕목사회 제 42회기 이취임식 및 감사예배

뉴욕목사회(회장 황동의 목사) 제 42회기 이취임식 및 감사예배가 지난 12월 뉴비전교회(담임 황동의 목사)에서 열렸다.

신임회장 황동의 목사는 “뉴욕목사회가 사역의 양적 질적인 발전을 해왔다. 지난 회기들을 거울삼아 모든 임직행위원들이 힘을 합하여 발전하는 목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42회기 목사회 사업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사흘간 필라델피아 파인힐 수양관에서 열리는 새해맞이 금식기도성회를 시작으로 1)매월 금식기도회를 가지며 2)월례모임을 통해 목회자 은사개발 발표회 개최 3)각 선교단체를 후원함으로 선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임하는 최예식 목사는 한 회기 수고한 임원들과 목사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행복했다고 말했다.

1부 예배는 부회장 이만호 목사 인도로 기도 김원기 목사(교협증경회장), 성경봉독 김정숙 목사(회계), 특송 뉴욕목사중앙단, 설교 김승희 목사(교협회장), 통성기도, 헌금특주 김철호 성도, 헌금기도 조병광 목사(협동총무), 축도 한재홍 목사(증경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승희 목사는 본문 누가복음 6장 38절은 뉴욕초대교회 개척 32년 동안 가장 힘들었던 1996년 봄에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이라며 “주는 목사회”(눅6:38)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가셨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목사인 내가 먼저 베풀고 나눠줄 때 복을 받는다. 42회기 목사회가 기쁨과 휴식과 평화를 주는 목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2부는 총무 이상열 목사 사회로 이임사 최예식 목사, 취임사 황동의 목사, 공로패 증정(전 임원 최예식

회장, 김기호 총무, 임병남 서기, 전희수 회계, 임명장(대표 유상열 총무) 및 위촉장(대표 김기호 선교분과) 수여, 축사 송병기 목사(증경회장), 최장섭 목사(교협증경회장), 권면 장석진 목사(교협증경회장), 광고 이영삼 목사(서기), 오찬기도 허길 목사(증경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유원정 기자)

‘활기찬 활동’에서 ‘견고한 활동’으로
뉴저지교협 증경회장단 초청 오찬



뉴저지교협 증경회장단 초청 오찬에서 김창길 목사가 격려사를 하고 있다.

뉴저지교협(회장 김동욱 목사) 27회기가 ‘증경회장단 초청 오찬’을 마쳤다. 지난 4일 정오 뉴저지 포트리에 위치한 ‘폼리식당’에는 역대 26명의 증경회장 중 7명의 증경회장들이 부부 동반으로 참석했다.

참석자는 4대 김창길 목사(개신교 수도원 원장), 12대 김정문 목사(뉴저지성서장로교회 담임), 14대 강재대 목사(뉴저지교협증경회장 은퇴), 20대 허상회 목사(뉴저지성도교회 담임), 21대 정창수 목사(뉴저지영광장로교회 은퇴), 25대 유재도 목사(땅끝교회 담임), 26대 박상현 목사(소망장로교회 담임). 김창길 목사는 격려사에서 26회기의 ‘활기찬 활동’에 이어 27회기

는 ‘견고한 활동’이 이어지기를 소망한다며, 뉴저지한인교회의 역사 기록서가 발행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회장 김동욱 목사는 26회기의 획기적인 사역을 이어 받아 27회기는 안정된 사무실 확보를 위해 힘쓸 예정이라며 증경회장들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했다. 이날 회동에는 다른 회기와는 달리 각 분과위원장들도 함께 참석했다.

이날 오찬은 총무 박근재 목사 사회로 인사말 회장 김동욱 목사, 기도 부회장 이동구 장로, 격려사 증경회장 김창길 목사, 광고 총무 박근재 목사가 했으며 식사기도는 서기 장동신 목사가 했다.

(기사제공: 뉴저지교협)

뉴욕원로목사회 뉴욕초대교회 초청예배

뉴욕원로목사회(회장 김용해 목사)가 지난 16일 뉴욕초대교회(담임 김승희 목사)에서 초청예배를 드렸다.

원로목사부부 60여명이 참석한 이날 예배 설교는 김승희 목사(뉴욕교협회장)가 사무엘상 24장 7절을 본문으로 “해하지 않는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인간관계를 잘해야 한다”며 “특히 교회 안에서 모든 사



뉴욕원로목사회 초청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람들이 함께 인간관계를 잘 형성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 회원들에게 성탄카드와 선물이 전달됐으며 선물은 초대교회에서 재정을 지원했다. 또 초대교회 교인들이 정성으로 마련한 오찬시간에는 회원들 상호간의 친목을 나누는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욕목사회 이취임식 및 감사예배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퀸즈장로교회 선교회원들이 사랑의 바구니를 만들고 있다

퀸즈장로교회 사랑의 바구니 13년째 전달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13년째 ‘사랑의 과일바구니’를 만들어 이웃과 커뮤니티에 사랑을 전달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12일 동 교회 남녀 선교회원들과 교역자들이 150여 개의 바구니를 만들었다. 이 사랑의 바구니는 지역 경찰서, 소방서, 양로원, 병원 등 사랑이 필요한 기관에 전달됐다. 바구니에는 각종 계절과일과 과자, 사탕 등 사랑의 메시지가 담긴 카드도 들어 있다.

신교회 총회장 이광윤 안수집사는 “회원들 마음이 하나가 되고 협조가 잘 돼 일이 빠르게 진행됐다”

(유원정 기자)

이노비, 코코장애인센터에서 크리스마스음악회

지난 14일 이노비(EnoB: Innovative Bridge 대표 강태욱)가 코코 장애인센터(대표 전선덕 권사)를 찾아 공연을 가졌다. 평소 공연을 볼 수 없는 장애인들과 가족에게 케를 함께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전선덕 권사는 “우리 아이들이 이노비 공연을 너무 좋아한다. 매년 이렇게 찾아와주는 이노비에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

공연 후에는 코코 식구들이 직접 만든 예쁜 카드를 감사의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공연은 뉴욕대학(NYU) 뮤지컬 작곡(Tisch School)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뮤지컬 명성왕후의 부음악감독 출신인 서해선 씨가 음악감독을 맡았으며, 뉴욕대학 출신으로 브로드웨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김원근과 에스더 공, 얼마 전 시카고에서 뮤지컬 미스사이공의 주인공으로 열연한 신

해지와 보스턴에서뮤지컬역사학위 중인 휴 차 그리고 드림에 이성구, 베이스에 성영원, 세션 키보드에 김수진이 함께 했다.

이노비의 크리스마스 아웃리치 콘서트는 매년 이노비가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한 해를 마감하며 이웃을 돌아보는 달인 12월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에서 총 7회의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다. 남은 일정은 다음과 같다.

뉴저지 밀알선교회: 21일(토) 오후 1시30분, 장애인과 가족 70명 대상, Riverside Community Church 트드워트니싱룸: 24일(화) 오후 2시30분, 양로원 거주 노인 70명 대상, 211 East 79th Street New York 유니온플라자 캐슬터: 27일(금) 오후 2시30분, 양로원 거주 노인 70명, 3323 Union St. Flushing.

(기사제공: 이노비)

Table with church announcements for various congregations including 감사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나성영락교회, 나성서부교회, 나성제일교회, 나침반교회, 남가주든든교회, 남가주리더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대홍성교회, 동문교회, 동양선교회, 디아스포라선교회, 드림교회, 삼성장로교회, 새천년교회, 새신앙교회, 미주양곡교회, 미주평안교회, 베델인교회, 복음장로교회, 브리지교회, 새생명선교회, 세계소망교회, 아카데미 온누리 소망교회, 안디옥장로교회, 엘버인침례교회, 요셉선교회, 일셔크리스천교회, 은혜한인교회, 주님의영광교회, 창대교회, 코너스톤 교회, 토렌스온교회.

제5차 사랑의쌀 나눔운동 5차 성금전달식 12일까지 총 6만6,685달러 모금

제5차 사랑의 쌀 나눔운동 5차 성금전달식이 12일 오전 11시30분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회의실에서 열렸다. 12일까지 모금



사랑의쌀 나눔운동 5차 모금전달식이 은혜한인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된 성금은 총 6만6,685달러(약정 포함)라고 주최측은 밝혔다.

사랑의 쌀 나눔운동 상임회장 한기홍 목사는 "교계가 앞장서서 남가주 한인교포사회를 돌아볼 수 있는 나눔운동을 전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운동이 교계는 물론 사회단체까지 모두가 하나가 되어 동참하는 모습이 얼마나 기쁘지 모른다. 이번 나눔운동을 계기로 모든 남가주의 교포사회가 하나가 되어 미국의 중심에서 미국에 영적 대각성을 이루고 다인종 사회 속에서 한인커뮤니티가 아름다운 본을 보이게 되길 소원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제28회 성결 포럼 J.B. Crouse Jr. 박사 강의 한국선교사역 회고 · 한국교회 발전위한 제언 주제

미주성결대학교(총장 류종길 박사)가 주최한 제28회 성결포럼이 '한국선교사역의 회고와 한국교회의 발전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16일 오전 10시30분 본교 채플실에서 열렸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J.B. Crouse Jr. 박사(OMS 명예총재)는 50년대부터 한국선교사로 섬겼던 일들에 대해 설명했다.

크라우스 박사는 "한국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OMS 선교회와 기독교성결교회 등 모든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선교사로 지내면서 가장 감사하게 된 것은 한국교회의 복음전도사역이 크게 성장했기 때문"이라 덧붙였다. 크라우스 박사는 "58년에 한국으로 가게 됐다. 당시 한국은 전쟁으로 인해 찢겨진 나라였다. 서울인구가 180만 명이었는데 서울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반도호텔로 8층이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3일이 걸렸다. 무엇보다 25세 청년이었던 나 자신에게 전쟁의 폐허가 된 그곳은 충격이었다. 많은 이들은 한국은 희망이 없는 나라라고 여겼다"고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 그가 한국에서 10년간 한 일은 그들의 상처를 싸매는 일이었으며, 굶주려 있는 자들을 먹이고 입을 옷과 약 등을 제공하는 사역이었다고 설명했다.

송하게 된 것을 예로 들었다. 또한 두 번째 기적은 굶어 죽어가는 이들이 많았던 나라가 경제강국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크라우스 박사는 "하나님의 생각은 복음사역을 위해 서로 사랑하고 하나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성령 충만하고 세계 어느 곳이라도 가서 그리스도 제자로 일할 젊은이들을 가진 저수지다. 교회의 수많은 젊은이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OMS는 동반사역을 하는 선교단체다. 동반사역은 성서적이다. OMS는 어느 나라든 현지인들과 동반사역을 한다. 예수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84개 단체가 함께했다. 1년 만에 5만명이 선교사로 헌신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그리스도 권위아래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우선하면 엄청난 일을 생산적으로 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날 포럼은 크라우스 박사의 발제가 마친 후 이정근 목사와 이기홍 목사가 논찬자로 나서 논찬했으며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 후 마쳤다.

(박준호 기자)



제28회 성결포럼이 '한국 선교사역의 회고와 한국 교회의 발전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미주성결대학교 채플에서 열렸다. 사진은 발제자로 나선 J.B. 크라우스 박사와 통역을 맡은 황의정 박사



미주 ACTS 총동문회가 크리스천웹사이트닷컴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됐다.

미주 ACTS 총동문회 초대회장에 정종원 목사 총무 송금관 목사, 회계:윤영준 목사

미주 아세아연합신학교(ACTS) 총동문회는 16일 오전 10시30분 송년회를 겸한 동문회 총회를 처치웹사이트닷컴 컨퍼런스룸에서 열고 초대회장에 정종원 목사(아이엘교회 담임)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윤영준 목사(한마음제자교회)의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는 추석근 목사(나침반교회)가 기도, 정인석 목사(하늘꿈교회)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벧후

공동대회장 박효우 목사는 "올해 나눔운동의 시작은 미약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격려해주시고 동참 해주셔서 힘이 됐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말했다.

공동대회장 민경엽 목사는 "사랑의 쌀 나눔운동을 펼쳐나가면서 오렌지카운티 지역의 교회현실을 경험하게 됐다. 많은 교회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나눔운동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 교회들에 전화로 협조를 구하다보니 아예 걸려 힘들어하는 담임목회자도 만나게 됐다. 이분에게 나눔운동을 통해 마련된 쌀을 가장 먼저 전달하려고 한다"고 말하며 "사랑의쌀 나눔운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이 적박하고 팍팍한 이민사회에 활력을 주는 동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OC교협 취임예배 및 송년모임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민경엽 목사) 회장단 취임예배 및 송년모임이 26일(목) 오후 6시 나침반교회(1200 W Lambert Rd, Brea CA)에서 개최된다.
▲문의: (562)691-0691

세리토스동양선교교회 크리스마스 음악회

세리토스동양선교교회(담임 방상용 목사)는 22일(주) 오후 3시 크리스마스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는 하프그룹, 유차부, 성가대, 유스그룹 뮤지컬이 출연하며 6세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하프 연주를 하게 된다.▲문의: (213)749-6365

제4회 하이어콜링 컨퍼런스

2013 미주 청년학생 겨울수련회 제4회 Higher Calling Conference(이하 HCC13)가 'The Life' 주제로 26일(목)부터 29일(주)까지 샌디에고 지역 타운&컨트리 리조트에서 열린다. 이번 컨퍼런스는 18세 이상 청년 및 대학생 대상으로 KCCUSA(미주한인대학생선교회·대표 김동환 목사), 미주성서화운동본부, 한인2세 목회자그룹 넥스젠 패스터스 펠로우십이 공동 주최한다.
▲문의:(213)389-5222, 이메일: gohighercalling

찬양인도자 청빙

남가주빛내리교회(담임 박용덕 목사)에서 찬양인도자를 청빙한다. 관심 있는 분은 이력서를 starkreanchurch@yahoo.com으로 보내면 된다.
▲문의: (714)401-9874

LA사랑의교회 성탄축하 및 7주년 감사예배

LA사랑의교회(담임 김기섭 목사) 성탄축하 및 교회탄생 7주년 감사예배가 오는 25일(수) 오전 11시에 개최된다.
▲문의: (323)930-0011

선미니스트리 이전

선미니스트리(대표 김정환 선교사)가 사무실을 세리토스 지역으로 이전했다. 선미니스트리는 사무실 이전을 기점으로 선교지역 사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선미니스트리의 새 주소는 13921 Artesia Blvd, Cerritos, CA
▲문의: (714)350-6957

일본선교 컨퍼런스

일본복음화를 위한 EC컨퍼런스(Equiper Conference)가 26일(목)부터 일주일간 무리에타 지역 갈보리채플 바이블 칼리지(39407 Murrieta Hot Springs Rd, CA)에서 열린다.
▲문의: (213)500-1201

학자금 장학금 정보박람회 인테그랄에듀와 말씀새로운교회 공동주최

학자금 장학금 정보 박람회가 12

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코리아 타운에 위치한 말씀새로운교회(담임 김희창 목사) 선교관에서 열렸다. 학자금 그랜트와 문을 받는 노하우를 인테그랄에듀 대표인 사이몬리 CPA가 장학금 정보 박람회와 정보 설명, 에세이 작성과 다량으로 좋은 추천서를 받는 방법과 입장에 대한 노하우를 김희창 박사(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박사과정 교수)가 자신의 자녀를 도와준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했다.
▲문의: 학자금(626)862-3596, 단체장학금(213)219-0649 (기사제공: 말씀새로운교회)



인테그랄 에듀와 말씀새로운교회 공동주최로 학자금 장학금 정보 박람회가 말씀새로운교회 선교관에서 열렸다

모나리자 스킨케어

1회 서비스 가격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

-60세이상 권사님 교인들께도 특별할인 서비스 해드립니다.

*사위시설 완비 (*두피 클리닉)

비타민+고주파	1회	\$35	10회	\$300
여드름	1회	\$40	10회	\$350
줄기세포	1회	\$120	10회	\$1,000
아쿠아솔루션	1회	\$100	10회	\$800
늘어진팔뚝 슬림	1회	\$30	10회	\$250
배경락	1회	\$35	10회	\$300
등경락	1회	\$40	10회	\$350
전신경락	1회	\$120	10회	\$1,000
하지정맥	1회	\$45	10회	\$400

(Special 기계)

*영구화장 최신기법 - 아이라인/눈썹라인/입술라인

모나리자 스킨케어

1134 S. Western Ave 2F. #B4. Los Angeles, CA 90006

Office (323)737-7221 / Cell(213)321-7137

이불 빨래 전문업체

Free Pickup & Delivery

Dry Cleaning Yes 213-268-6677

빨래하는 시간을 절약 하세요!!!

이불 \$9.99 UP TO
Y-Shirt \$1.50 UP TO
양복 상,아 \$11.99 UP TO

FREE DELIVERY

대형 극세사 오리털 이불
대형 커튼, 유니폼, 단체복
가죽, 카페트, 매트

한인타운, 다운타운 내 > 수거 > 세탁 > 배달까지 YES 에서 다 해결해 드립니다.
목회자 분들께 특별서비스 해 드립니다.

“불신의 정국 풀자” ... 교계, 줄 잇는 ‘시국행사’

시국을 걱정하는 교계의 움직임이 부산하다. 안으로는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논란에 이은 정치권의 대선불복 발언 여파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밖으로 눈을 돌리면 북한 체제 내부의 소용돌이와 함께 주변 열강들과의 관계 설정에서도 국민적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예장통합총회(총회장 김동엽 목사)는 오는 20일 오전 11시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2013 비상 시국극식기도회'를 열었다. 최근 들어 교단 차원에서 처음 열리는 시국기도회다. 총회 임원 및 전국 65개 노회 대표, 남선교회 및 장로회 전국연합회, 신학대교수와 목회자 후보생 등 1000여명

이 참석했다. 통합 총회 기획국 관계자는 “젊은 한 갈등으로 얽힌 한국사회는 물론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받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좌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나라와 민족의 치유와 화해, 한국교회의 갱신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19일에는 통합 총회 사회봉사부가 주최하는 시국토론회가 열렸다. '오늘의 시국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현재 불거지고 있는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 문제, 남북 관계 문제 등의 해법을 모색했다.

교회연합기구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도 시국 기도모임을 가졌다. 13

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대강당에서 열리는 시국기도회에는 여야 국회의원들과 한기총 회원교단 목회자 및 성도들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5일 '나라를 사랑하는 기독교인들'이란 명의로 발표된 시국선언문의 서명자가 엿새 만에 4000명을 돌파했다. '나라의 안정을 추구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지 9개월

이 지나도록 우리나라는 여전히 나라를 흔드는 세력 때문에 안정을 찾지 못한 채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잘 지켜 주시어 하루빨리 나라가 안정을 되찾아 미래로 나아가길 바란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명에는 이종운 이영훈 최성규 이광선 신신목 이수영 임명진 서경석 서임중 목사와 김진호 김준규 박경진 김영훈 김우신 장로 등 목사 및 장로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피종진 목사 세복협 부흥사 대상 수상

세계복음화협의회(세복협·대표회장 설동욱 목사)와 국민일보가 주최한 제14차 세복협 국민대상 시상식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개최됐다.

150여명이 참석한 이날 시상식에는 국민대상에 선정된 6명이 상패와 상금을 받았다. 자랑스러운 부흥사상은 피종진 목사(남서울중앙교회), 목회자상은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가 받았다. 정치인상은 황우여 장로(충무성결교회), 기업인상은 설동순 권사(순창중앙교회), 선교인상은 오세관 태극선교사, 연예인상은 김종찬 목사(말씀과관람의교회)가 각각 받았다.

예배와 시상식 순으로 진행된 행사는 설동욱 목사의 사회로 김 조, 고영기, 윤보환, 서욱임, 박태남 목사, 국민일보 조민재 회장 등이 순서를 맡았다.



피종진 목사는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세계복음화대성회와 이스라엘복음화대성회 등 한국 교회의 세계교회의 대명칭회 인도, 성령운동을 통한 한국 교회 부흥을 이끈 공로”로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주최 '제2회 대한민국 기독교 대상 시상식'에서 자랑스러운 부흥사 대상도 수상했다. (기사제공: 남서울중앙교회)

총신대 총장에 길자연 목사 선출

3차 투표서 총 133표 중 90표 얻어

길자연 왕성교회 원로목사가 총신대학교 5대 총장에 선출됐다. 길목사는 17일 서울 사당동 총신대에서 열린 운영이사회에서 3차 투표 끝에 총 133표 중 90표를 얻어 총장에 당선됐다.

운영이사회는 오후 1시30분에 시작했으나 길 목사의 후보자격을 놓고 2시간 가까이 논쟁이 벌어져 투표가 늦어졌다. 총신대 총장은 이사회 정관에 따라 연령제한 규정 제한이 없다. 그러나 예정합동은 지난 98회 총회에서 만70세를 맞아 정년 은퇴한 이는 총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 이사 등을 비롯한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결의했다. 운영이사회 중 일부는 총신대가 예정합동 총회 직영신학교이기 때문에 총회의 결의를 따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길목사는 “오늘 운영위에서 나온 법에 대한 이야기도 잘 들었고, 우리 교단이 총신 총장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것을 느꼈다”며 “세계 최고의 신학교라고 하지만 총신대는 구조적으로 고쳐야 할 부분이 많다”고 했다. 이어 “지나간 5년간 저 개인에 대해 말이 많았지만 당당하게 변명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길목사는 지난 5일 총장후보추천위원회 면담에서 재정난에 빠진 학교를 위해 230

억원을 모금하겠다는 계획과 현재 총신의 신학교육이 목회자와 교회에 도움이 되도록 교과과정부터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길목사는 경희대 한의학과를 졸업했으며 풀러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과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이사장, 칼빈대 총장을 역임했다.

한편 총신대 학생 60여명은 이사회가 열린 종합관 건물 앞에 플래카드를 내걸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을 총장 후보로 인정할 수 없다”며 시위를 벌였다.

한기총, 박윤식 목사 이단 해제 결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17일 실행위원회를 열고 광각제일교회 박윤식 원로 목사의 이단 해제를 결의했다. 한기총은 앞서 2010년 강제형 변승우 목사에 이어 올 초 ‘다락방’의 류광수 목사도 이단 혐의가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된 인사를 교계연합기구인 한기총이 해제를 결정할 자격이 있는 지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 특별위

제27회 기독교문화대상 수상자 확정

음악: 김은경, 오페라: 이기균, 무용: 류석훈 이윤경

기독교문화예술원(총재 김삼환 김용완 목사)이 심사위원회(위원장 소강석 목사)를 거쳐 제27회 기독교문화대상 음악 오페라 무용 부문 3개 분야의 수상자를 확정했다. 수상자와 작품은 기독교적 주제의 식과 메시지를 담아서 일반적인 공

감을 얻은 작품으로 사회적 객관성과 수상자들의 문화공헌도를 중시하여 선정됐다.

각 부문의 수상자는 ■음악부문 소프라노 김은경 ■오페라부문 지휘자 이기균 ■무용부문 류석훈 이윤경 부부가 선정됐다.

기독교문화예술원장 안준배 목사는 “제27회 기독교문화대상은 수상분야는 좁혔지만 기독교적 주제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객관성과 수상자들의 문화공헌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고백과 선교활동도 참작하여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독교문화대상은 1983년 제정되어 26회에 걸쳐 국내 최정상 문화예술인을 선정 시상하여 기독교문화예술이 심층 확대 되는 데 기여해왔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상장, 메달, 상패가 수여된다. 시상식은 2014년 2월 27일 백석아트홀에서 개최된다.

“2014년은 성령으로 하나된 한국교회 되자”

한기총 ‘대한민국 기독교의 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12일 오후 서울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제24회 대한민국 기독교의 밤 및 제2회 기독교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모인 교계 지도자와 성도 700여명은 세계적 경제 불황과 남북한 긴장고조, 한국교회의 성장둔화 등 수많은 악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구했다.

행사는 어린이 찬양과 울동, 할렐루야성가대의 식전공연에 이어 1부 예배 및 한기총 영상, 2부 시상식 및 축하 락 공연, 3부 만찬 및 축하공연 순으로 이뤄졌다.

홍재철 한기총 대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종교가 힘들어지면 나라가 힘든 법”이라며 “2014년에는 성령으로 하나된 한국교회가 성장의 한계를 뛰어넘는 해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기총 명예회장 오관석 목사는 ‘네가 낮아지면’(사 60:14~22)이란 제목의 설교에서 한기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낮은 자세로 한국교회를 섬기기를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2014년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총회의 성공 개최, 한국교회의 화합과 일치와 발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불순세력 척결을 다짐하는 구호를 제창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총과 공의가 넘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 많이 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기총 전 대표회장 지덕 목사는 “한기총이 더욱더 민족에게 소망을 주는 연합기구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격려사를 했다.

한기총은 김장환(기침·국동방송 이사장) 목사에게 자랑스러운 목회자상을, 피종진(예장 합동·남서울중앙교회 원로) 목사에게는 자랑스러운 부흥사상을 수여했다. 하태초(예장 합동) 장로에게는 장로상을 수여했다.

방송인상은 텔런트 한인수(신천감리교회) 장로, 군 선교상은 정진성(예장 정통보수) 목사, 법조인상은 송명호(법무법인 서정) 변호사, 경찰관상은 유중호(경찰청 보안과장) 총경이 각각 수상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4년도 목사 학력 및 고시 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2014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자격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응시 자격 (Candidacy Qualification)

본 총회 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졸업하였거나 2014년 6월 이전에 졸업 예정인 분으로 개혁주의 신앙이 투철한 무종교인으로서는 확실한 소명과 영적 지도력을 가진 분.

2. 고시 일자 및 장소 (Examination Date and Place)

- 1) 고시 일자: 2014년 5월 16일(금) ~ 19일(월)
- 2) 고시 장소: Toronto, Canada

3. 고시 과목 (Examination Subjects)

- 1) 필기고시: (1)교회사 (2)조직신학 (3)미국장로교회사 (4)헌법 (이상 4과목)
- 2) 제출고시: (1)구약주해 (2)신약주해 (3)논문 (4)설교원고 (이상 4편)
제출고시 내용
(1) 구약 주해 - 누가복음 16:19-26
(2) 신약 주해 - 레위기 21:1-9
(3) 논문 제목 - 표절과 목회자의 양심에 대한 문제를 논하시오
(4) 설교 본문 - ① 신약: 고린도전서 15:1-10
② 설교원고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③ 필기고시 당일에 본인이 선택한 본문은 중심으로 설교실기고사를 치를 것
(5) 제출고시 과목에 관한 요령 - 주해 및 논문은 아래 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 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 부는 PDF 파일로 서기에 이메일 할 것.
1. Letter Size(8 1/2 x 11)용지를 사용 할 것
2. 한글 11호 크기의 글자를 사용하되, 줄 간격은 180% 간격으로 (영문 12호 Double Space) 작성할 것.
3. 본문과 주해는 각각 25매 내외로 작성하며, 설교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 (10pages이내)
4. 본문과 주해는 논문작성 원칙에 따를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할 것
5. PDF 파일을 보낼 때는 주제이름을 파일 이름으로 사용할 것
3) 면접 고시

4. 응시 서류 (Accompanying Documents)

- 1) 신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2014년 6월 이전 졸업 예정 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 2) 신학교 전 과정 성적 증명서 1부
- 3) 소속 노회장 추천서 1부
- 4) 소속 노회 목사 후보생 증명서 1부
- 5) 이력서(자세한 신력을 기재해야 함) 1부
- 6) 명함만 사진 2장
- 7) 고시료: \$150

5. 서류 제출 요령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1) 모든 응시 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원고는 2014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2014년 3월 31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3) 합격자 발표는 38회 총회기간(5월 20일~22일) 중에 합격증서 수여와 함께 함

6. 참고 사항 (Miscellaneous Information)

- 1)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한세영 목사에게 5월 16일~20일까지 속소를 예약할 것
- 2) 고시 당일 Notebook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지킬 것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program은 고시 장소에 들어오기 전에 지울 것
2. 시험 중에는 화면을 절대로 바꾸지 말 것. 허락없이 화면을 바꾸면 퇴장당함.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책임지고 준비할 것.

7. 응시 서류 및 제출 과목 원고 제출처 (Submission Address)

고시부 서기: 한세영 목사 (Rev. Se Young Han) / Email: syhan91@hotmail.com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Cell: (703)945-2958

8. 기타 문의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 1) 고시부 부장: 허상회 목사 (201)981-0009, sheo1004@hotmail.com
- 2) 고시부 서기: 한세영 목사 (703)945-2958, syhan91@hotmail.com
- 3) 영어권 안내: 김지영 목사 (949)735-4905, pastorjames@jubileepci.org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13. Those who wish to become candidates are encouraged to send in all the necessary documents to begin the process. Those who prefer the use of English may submit all documents and take exams in English.

1. Candidacy Qualification

The applicant must be a M. Div graduate (or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4) of a seminary (acknowledged) by KAPC. He must have a clear confession in the tradition of the Reformed Faith; he also should be a Christian in good standing in a local church with a clear sense of calling into ministry, and with a recognized gift in leadership.

2. Examination Date and Place:

- 1) Dates: May 16(Fri) ~ 19(Mon), 2014
- 2) Place: Toronto, Canada

3. Examination Subjects

- 1) Written Test: (1)Church History, (2)Systematic Theology, (3)American Church History (4)Constitution of KAPC
- 2) Written Assignment: (1)OT Exegesis Paper (2)NT Exegesis Paper (3)Thesis Paper (4)Manuscript of Sermon
(1) OT Exegesis Text - Luke 16:19-26
(2) NT Exegesis Text - Leviticus 21:1-9
(3) Thesis Topic - Plagiarism and integrity
(4) Sermon Text - ① NT: 1 Corinthians 15:1-10
During the exam period, candidates will be asked to preach from their written sermon.
(5)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1.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2. Use 12-point font and double space the text.
3. Both thesis and exegetical paper and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4.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for thesis, and all quotes,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e. footnotes or endnotes).
5.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syhan91@hot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a)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b)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ample: Samhan-OTExegesisPaper.pdf)
c) You may send multiple emails if your files are too big

3) Oral Interview

4. Accompanying Documents

- 1)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with M.Div. degree of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s is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4.
- 2)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Div. program
- 3)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a Presbytery that the candidate is under care.
- 4)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 5) Curriculum Vitae(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infant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 6)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 7) Fee: \$150 (US)

5.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1)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31, 2014. (Packages post-marked before March 31, 2014 are valid.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 2) The candidates will not receive back the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 3) The result of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38th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20-22).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sustain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introduced to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6. Miscellaneous Information

- 1)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appropriately for the dates of exam (May 16-20) through Rev. Han (703)945-2958, (syhan91@hotmail.com)
- 2) Candidates may use personal notebook computer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1. The personal notebook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2.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an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 room.
3.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7. Submission Address

Rev. Se Young Han / Address: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Cell: 703-945-2958 E-mail: syhan91@hotmail.com

8.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 1) Chair of the Exam Committee: Rev. Samuel Heo (201)981-0009 (sheo1004@hotmail.com)
- 2) Clerk of the Exam Committee: Rev. Se Young Han (703)945-2958 (syhan91@hotmail.com)
- 3) nquires in English: Rev. James Kim (949)735-4905 (pastorjames@jubileepci.org)

특별기고

자폐아 진단과 치료

이 남 경(자폐아를 둔 어머니)

'My son is autistic'

내 아이는 자폐를 갖고 있습니다 - 2. 자폐 치료 및 서비스

경민이가 학교에서 발달검사를 받고난 뒤 킨더가든부터 받기 시작한 서비스는 언어치료와 작업치료였다. 언어발달이 현저히 느렸기 때문에 치료사와 일대일...

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속상했다. 하지만, 결국 학교를 옮김으로써 더 많은 서비스와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지금은 킨더가...

연습시키기 시작한 뒤로 많은 발전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는 경민이가 한 시간 레슨을 내 도움 없이도 잘 받고, 오케스트라...

자폐에 관해

미국에서는 아동 88명 당 한 명꼴로 자폐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폐를 가진 사람은 미국에서만 약 200만 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전 세계적으로는 자폐인구가...

로그래프와 활동들을 찾아 아이가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아이를 여러 많은 활동에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가 아이와 함께 활동을 하고 아이가 활동에 참여하도록...

자폐 아동88명당 한 명...유형 다양만큼 치료법도 다양 사회성 결여가 대표적...완치 어렵지만 증상호전은 가능

자폐의 유형이 다양한 만큼 지금껏 개발되어온 자폐 치료법도 다양하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폐의 치료와 개입서비스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많은 자폐아를 둔 부모들, 특히 자폐 진단을 최근에 받은 아이들의 부모들은 이런 필수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상을 보인다", "자폐아라서 그렇다"고 여겨서는 안되며, 의뢰진과 상담하고 적극적으로 아이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 칼럼의 주제이기도 한, 자폐인의 성장과 미래는 자폐인의 삶에 있어 중요한 토픽이다. 성공적인 자폐 개입치료와 서비스를 통해 자폐아들은 성장해서 성인이 된 후 의미 있고, 생산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Directory of churches and ministries including: 뉴욕갯세마네교회, 뉴욕목양장로교회,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뉴욕새사람교회,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뉴욕중부교회, 뉴욕초대교회, 뉴저지성도교회, 리빙스톤교회, 롱아일랜드성결교회, 선한목자교회, 주비전교회, 중부뉴저지장로교회, 퀸즈장로교회, 퀸즈한인교회, 한마음침례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남부한인장로교회, 덴버한인장로교회, 몽고메리교회,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벨앨교회, 보스턴장로교회, 볼티모어교회, 샬럿장로교회, 새시온침례교회, 시애틀평강장로교회, 알칸사 제자들교회, 앵커리지얼린교회, 엘파소얼린교회, 영생장로교회, 온누리교회,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주예수교회, 르쿠르교회, 타코마 삼일교회, 타코마새생명교회,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템피파장로교회,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지역, 하와이 행복교회,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사모칼럼// 회복된 사모, 행복한 시역



황순원 사모 (CMF사모사역원 원장)

8. 사모의 인격 가꾸기(2)

사랑은 오래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전 13:4-7). 여기에 소개되는 성품은 곧 주님의 성품을 말해 줍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에 그의 저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상관없는 경건의 모양이나 경험은 다 거짓입니다'라고 했습니다.

필자는 사별 후에 홀로 있는 5년 동안 화를 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예수를 오래 믿고 열심히 기도를 하면 이렇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다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홀로 서기하는 것이 무척 힘이 들기는 해

이도 하나님으로 고백하던 읍의 고백이 생각났습니다. 간절한 기도에도 응답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축복의 약속도 주셨습니다. 이삭이 모리아산 제단위에 올리웠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들려 온 음성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시며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 마침내 이삭은 제단위에 묶여 있던 밧줄에서 풀려나 제단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저의 5년간의 묶여있던 과부의 밧줄을 이제 풀어주신다고 하시었습니다. 이 응답을 받아 눈물이 펄펄 쏟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5년 동안 울고 싶어도 마음껏 울지 못하던 참에 목을 놓아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민하며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눅2:38 마리아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순해 볼 각오와 결심에서 나온 고백이 저의 마음을 강타하였습니다. 그 후 조촐한 결혼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염려와 두려움은 눈 녹듯 사라져 버리고 확실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결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둘이는 서로 너무나 달랐습니다. 사소한 일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데 남편도 놀라고 저도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면 이런 것쯤이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스스로 자책하면서도 또 다시 서로 다른 부분 때문에 불편하다고 아우성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낙심까지 되었습니다.

다시 알게 된 것은 5년 동안 혼자 생활하면서 화가 나지 않았던 것은 결코 내가 기록해져서 아니고 누군가가 나

면이 많이 깎인 다이아몬드일수록 값비싸 많이 깎여 모든 것 수용하는 사모가 빛나

도 성화를 이루는 데는 아주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5년 후에 재혼을 하였습니다. 일찍 사모사역을 위한 비전을 갖고 시작한 목회였기에 사모의 행복을 최대한으로 누리던 사역이 남편과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다시 태어나도 사모가 되고 싶어요" 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또 한 사모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목사와 결혼을 하여야만 된다고 생각하였기에 계속해서 재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기도에도 대한 응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재혼을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위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 내가 과부가 되었기로서니 무엇이 그렇게도 억울할까 생각하며 다시금 주님께 재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이제 저의 몸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혼자서 몸으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다면 이 몸을 받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부르짖는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몸도 떨렸습니다. 또 다시 없었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신 아버지 이제 홀로 살 수 있는 체질로 바꾸어주세요. 남은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23년 동안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함께 사역하는 데 익숙해져있는 몸이기에 이제는 새로 빚어주셔야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곡히 부르짖는 절규를 들으신 하나님은 7개월 만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받고 나타났다고 하는 목사님의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도 응답을 주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힘들게 재헌신하며 혼자 살기로 다짐한지 일 년도 채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무엇입니까? 햇갈려서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힘들게 힘들게 고민하다가 결정하고 새 결단을 하지 얼마나 되었고... 이제 와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주신기도도 하나님, 취하신

를 자극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임을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단하였습니다. "남편 앞에서 절단할 필요 없구나. 이제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자" 하고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이 한마디가 그렇게도 어려울 수가 없었습니다. 알량한 자존심을 무시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익숙하지도 않은 말을 하려니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기도생활 및 종교활동은 많이 해왔기에 익숙하지만 생각보다 남편에게 용서를 비는 말은 잘 하지 않았던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고자세였고 교만하였던가를 처절하게 느끼는 순간. 바울의 고백인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생각났습니다. 나는 이 고백과는 정반대로 '나는 날마다 사노라'였습니다.

특히 남편 앞에서는 한 번도 지는 법이 없었고 오히려 남편을 핀잔하는 말을 열심히 하였던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어떤 경우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비는 말을 듣지 않고는 다음 일을 하지 않는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침내 눈을 딱 감고 입을 벌려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이 말에 남편의 응어리는 그냥 풀려나가며 오히려 우리 부부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 잘하려고 애쓰며 긴장하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며 받아주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다이아몬드의 값이 비싼 이유는 많이 깎였기 때문입니다. 원래 재료는 석탄이지만 갈고 닦고 또 갈고 닦아 마침내 반짝반짝 빛이 나는 보석 중에 보석이 된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면이 많이 깎인 다이아몬드일수록 값이 더욱 비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부딪치고 또 부딪치는 동안 깎이고 또 깎이어서 이제는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모에게서 빛이 납니다. 이런 사모와 함께 사역하는 목회자는 행복합니다. 성도들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합니다.

▲이메일:hwangsunwon@gmail.com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시3:1-4)

하나님께 쓰임 받는 성도들의 특징을 보면 그 영혼에 대적이 많습니다. 다윗도 나의 영혼에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면서 자신의 심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가장 당황하게 됩니다. 나의 영혼 깊은 곳에서 "너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말이 들리는 것 같을 때처럼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더 신실하게 잘 해보

려고 할 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일이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에 오는 충격이 더욱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모든 대적이 공격과 저주 속에서 사람들과 부딪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성도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화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으니(시3:3-4)

다윗은 간절히 기도하되 먼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확실히 잘 알고 기도했습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2절과 3절 사이에 "그러나"라는 말이 빠졌는데 이 말슴은 어떠한 상황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드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축복입니다(요16:32, 33). 다 버리고 다 흠어져서 혼

자 있는 것 같지만 아버지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간절히 부르짖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확신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증거요 응답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소에서 응답하시는데도" 아멘!

수 기도하는 사람의 매력(시3:5-6)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매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속에서도 태산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잠잠 자고 잘자는 축복을 누립니다. 잠을 잘잘 뿐만 아니라 잠을 잘 깬다는 것입니다. 밤새 잠잠 자는 것도 기적이지만 밤새 잘 자고 아침 일찍 깨는 것도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어 이렇게 잘 자고 깨었다는 것을 감사하며 하루를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또 하나의 매력은 어떠한 상황속에서도 아주 담대합니다. 본문 6절에 천만인은 천만 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셀 수 없는 숫자" 천천만 만을 말합니다. 셀 수 없는 숫자가 나를 둘러싸고 공격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이 담대함은 심령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든든하게 붙잡고 있는 확신과 함께 누리는 매력이요 능력입니다.

목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시3:7-8)

기도하는 사람은 천천만만이 나를 둘러싸려 해도 중심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넘칩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어떻게 손보셨는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의 매력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축복하는 여유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8

절).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은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이 늘 승리합니다. 주목할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늘 내가 잘되고 내가 응답받는 것 때문에 오히려 성도들이 복을 받고 그 지역이 복을 받고 나라까지도 복을 받을 것을 믿고 기도하는 여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금 기도하는 경건한 성도(시4:1-3)

시3편은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받은 은혜와 축복을 말하는 "아침의 시"라고 한다면 시4편은 저녁에 하루일과를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격해 찬양하는 "저녁의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넘치는 기쁨을 표현하고 이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많은 악기를 사용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며 저녁에 평안히

눅기 전에 감격해 표현한 시입니다. 특히 3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라고 고백하면서 세상에서 헛된 일을 경영하는 사람과 경건한 성도와와의 차이가 얼마나 엄청난지 비교하면서 그 은혜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가정마다 경건한 자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경건한 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사를 경영하는 자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토 경건한 성도의 축복(시4:3-4)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경건한 자를 택하셨습니다. 경건은 법사에 유익합니다. 금생 뿐만 아니라 내생까지 축복이 보장된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딤후4:7, 8). "경건한 자의 축복"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더욱 풍성하게 많이 느끼며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경건에 이르기에 연습하러했다 해서 경건에 이르는 시간과 과정을 대단한 것처럼 느끼

나 자랑하려하는데 이 또한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40일 금식기도를 했다... 하루에 몇시간 기도를 한다... 말씀을 몇 번 읽었다...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해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며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깊이 체험하며 날마다 감사하고 있는지에 더욱 민감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주 갈멜산기도원 기도부흥성회

기간 : 2014년 1월 16일(목)~23일(목)

시간 : 새벽 5:30, 오전 10:30, 오후 7:30

* 주일은 기도성회가 없습니다.

장소 : 미주 갈멜산기도원(문의 213.382.1450)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www.galmelsan.or.kr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미주 갈멜산기도원

Christmas Greetings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아심을 입은 사람들중에 평화로다 아니라(눅 2:14)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길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el. (714)521-0991 Cell.(714)521-4636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el. (323)913-4499 Fax.(323)913-4494	나성서부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Pico+Fairfax) Tel.(323)939-7323 Fax.(323)939-1656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12 Tel.(562)691-0691 Fax.(562)691-0698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1645 Beverly Bl. L.A., CA 90026 Tel. (213)481-2779 Fax.(213)481-3761	남가주리디머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Tel. (213)215-8523 Fax.(213)977-1183	남가주빛내리교회 담임목사: 박용덕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el. (714)401-9874 Fax.(562)947-1760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Tel. (714)772-7777 Fax.(714)772-0777	남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성섭 3619 McKee Rd, Charlotte, NC 28270 Tel.(704)-841-0821 Fax.(704)841-1625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Tel. (718)464-2295 Fax.(718)762-4693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40-05 Skilman Ave, Sunnyside, NY 11104 Tel. (718)361-9199 Fax.(718)361-9433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295-7987 Fax.(516)883-1961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Tel. (718)461-7835 Cell.(718)938-1777	뉴욕에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종훈 7 Jarvis Ave., Syosset, NY 11791 Tel. (516)938-0383 Fax. (516)938-3824
뉴욕중부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252-00 Horace Harding Expwy, Little Neck, NY 11362 Tel.(718)279-2757,2758 Fax.(718)279-1823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Tel. (201)342-9194 Fax.(201)943-5204	동양선교교회 담임목사: 박형은 424 N. Western Ave. L.A., CA 90004 Tel.(323)466-1234 Fax. (323)466-0816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el. (702)579-7576 Fax.(702)257-9191	라스베가스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3825 Melody Ln, Las Vegas, NV 89108 Tel. (702)648-7994 Fax. (702)648-7057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37-57 104St, Flushing, NY 11368 Tel. (718)961-2171 Fax.(718)961-3631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Tel.(610)222-0691 Fax.(610)222-0692
미주 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Tel.(213)381-2202 Fax(213)381-2535	미주 벨엘교회 담임목사: 정요한 158 S. Western Ave. #102 L.A., CA 90004 Tel.(213)422-9191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중운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Tel. (215)945-1512 Fax.(215)945-2095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2 Main St, Hopkinton, MA 01748 Tel. (508)435-4579 Fax.(508)435-5467	브리지교회 담임목사: 장세정 1067 E. Badillo St., Covina, CA 91724 Tel.(626)339-6177 Fax.(626)967-3078	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501 S. Idaho St. #200 La Habra CA 90631 Tel. (714)524-8800 Fax.(562)690-8044	샤롯데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701 Scaleybark Rd, Charlotte, NC 28209 Tel.(704)529-0900 Fax.(704)529-0998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Tel. (213)745-9191 사택.(818)893-8607	시애틀평양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Tel.(206)527-0981 Fax.(206)524-1746	안디옥장로교회 담임목사: 지윤성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Tel. (818)249-2871 Fax.(818)249-0516	알칸사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Tel. (501)920-9049 사택:(501)425-5178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한중수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el. (949)857-9425 Fax.(949)857-9472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Tel. (215)542-0288 Fax.(215)542-9037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Tel. (915)755-1490 Fax.(915)751-4365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8220 Briarwood St, Anch., AK 99518 Tel.(907)344-6446, Fax.(907)344-3182	요셉선교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301 S. Kingsley Dr.2F-B L.A., CA 90020 Tel. (213)245-409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Tel.(703)941-4447 Fax.(703)941-4448	주 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Tel. (804)560-7500 Fax.(804)560-7514	중부뉴저지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원호 445 Old Post Road Edison, NJ 08817 Tel. (732)310-0022 Fax. (732)537-9742	코너스톤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Tel. (310)530-4040 Fax.(310)530-8400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Tel. (718)672-1150 Fax.(718)672-1151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040 Fax.(718)358-7789	풍성한교회 담임목사: 박호우 291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8 Tel. (213)381-9490 Fax.(213)385-9191	하트포드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Tel.(860)643-4738 Fax.(860)647-0565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Tel.(808)585-1859	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마이클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Tel. (516)277-1103 Cell.(917)922-0500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2122 Metcalf St., Hon., HI 96822 Tel. (808)947-5252 Fax.(808)947-5151